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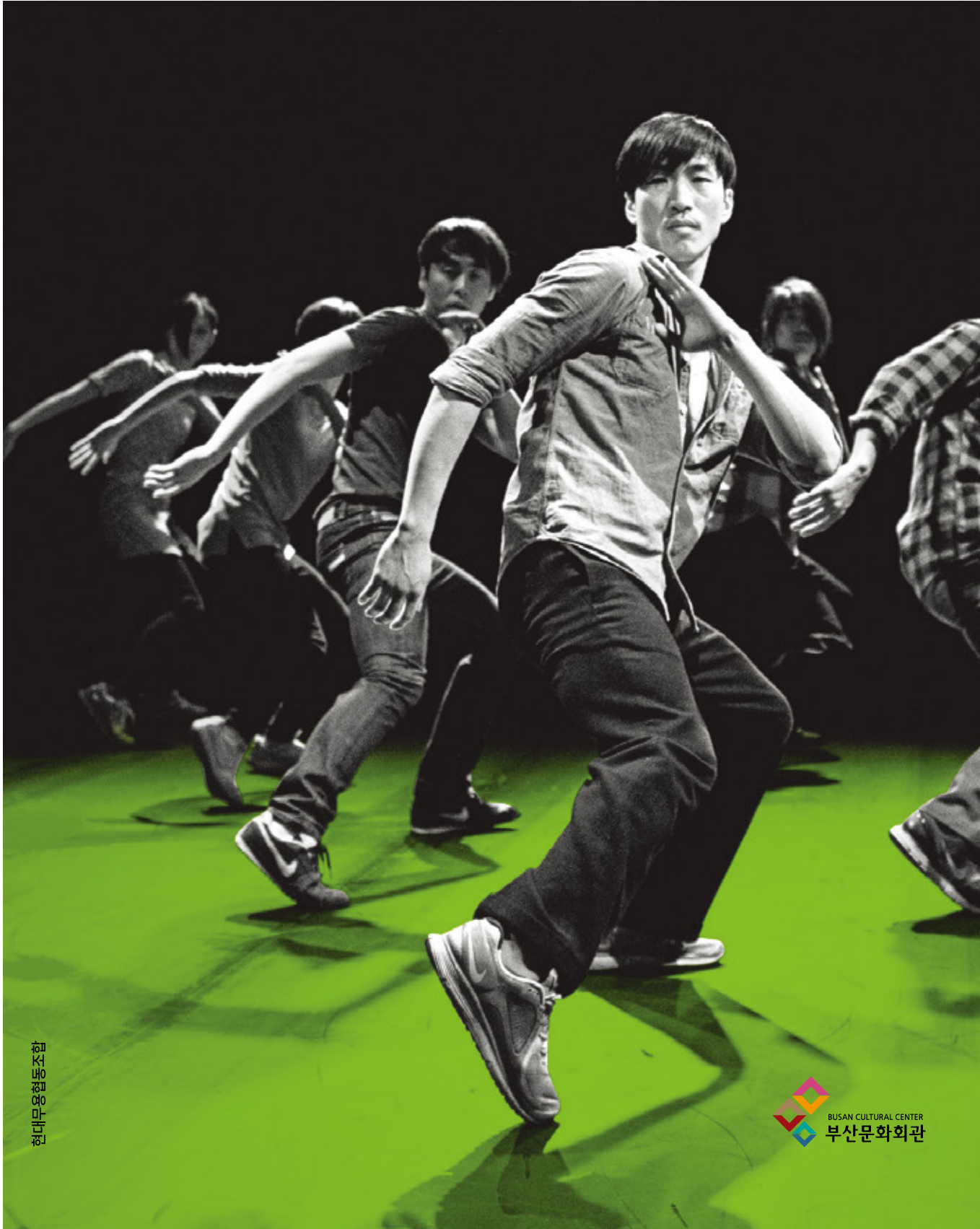
2019 vol.328

04

유럽 박물관 기행
아름다운 고전
오르세 미술관(Musée d'Orsay)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커버스토리
컨템포러리 댄싱스타들의
'가을운동회' with CODA



현대무용협동조합



2019 부산사랑 음악회

부산 유라시아 그리고 북극항로

2019. 5. 26. Sun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ROGRAM

차이콥스키 P.I. Tchaikovsky	슬라브 행진곡 작품31 Marche Slave, Op.31
차이콥스키 P.I. Tchaikovsky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35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차이콥스키 P.I. Tchaikovsky	교향곡 제5번 e단조 작품64 Symphony No.5 in e minor, Op.64

예술감독 오충근 지휘 Choong-Keun Oh | 연주 유라시아오션필하모닉오케스트라 EPOO | 협연 박지윤 바이올린 Ji-Yoon Park

주최 부산 MBC 주관 부산 MBC 유라시아오션필하모닉오케스트라 추진위원회 후원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문의 부산 MBC 051-760-1093 초대권신청 부산 MBC 홈페이지 www.busanmbc.co.kr 입장권 전석무료 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

유라시아오션필하모닉오케스트라(EPOO) 주요 멤버들이 펼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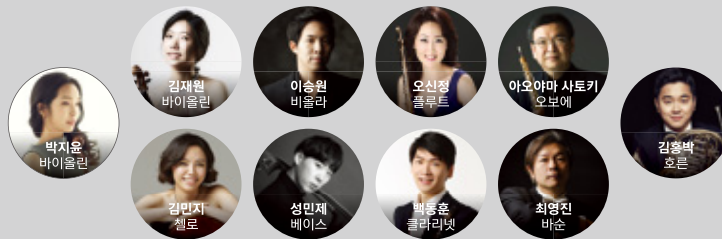
2019 EPOO CHAMBER MUSIC

2019. 5. 27. Mon 7:30pm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세계 속의 한국

최정상 음악가의 만남

〈실내악 콘서트〉



| 주 최 | 부산 MBC
| 문 의 | 051-607-6000
| 입장료 | 전석 3만원



2019 금정 어린이 세계상

2019.5.5.(일) 금정문화회관 공연장·야외마당

보고 듣고 참여하는 어린이날 1일 종합선물세트!
마술같은 미술 퍼포먼스 페인터스 히어로, 그리고 포켓다이노 공연
이상한 나라를 여행하며 예술적 감성을 키우는 체험놀이



이상한나라의 엘리스
체험놀이

피크닉존

소공연장
포켓다이노

체험마당



with 노만파킨슨展



금난새와 함께하는 '스타일은 영원하다'

2019. 4. 5 금요일 오전 11시, 오후 3시(총2회 공연)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성인 2만원 / 학생 1만원 (전시관람 포함)
예매 부산시민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문의 051. 630. 5200
주최/주관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후원 KT&G 상상마당



부산 인디뮤지션과 함께하는 스타일은 영원하다

2019. 4.14 일요일 17: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전시관람 포함)
예매 부산시민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문의 051. 630. 5200

동화 속 발레 갈라 콘서트

2019.5.11 (토) / 1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주최 해운대 문화회관 부산발레시어터

관람제한 만 3세 이상 소요시간 70분

지정좌석 VIP석 30,000원 / R석(1층) 20,000원 / S석(2층) 10,000원 / A석(2층) 5,000원

출연진



해설 이서연, 김예가타리나, 서주희, 박민지, 박영진, 최수연, 한호정, 윤영훈, 정성복, 조민관

전화예매 인터넷예매 해운대문화회관(051-749-7651) 누리집(www.hc.or.kr) 051-749-7651 | 누리집(www.hc.or.kr) 051-749-7651 | 누리집(www.hc.or.kr) 051-749-7651 | 누리집(www.hc.or.kr) 051-749-7651



클래식과 함께 떠나는 유럽여행2

음악과 함께하는 유럽 여행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해설이 함께하는 음악 여행



해설 김성민, 바리톤 허중훈, 클래식 기타 이준호, 피아노 김경미

2019. 5. 29.(수) 19: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주최·주관 해운대문화회관 | 티켓 지정좌석 1층 10,000원 2층 5,000원 | 티켓예매 인터파크 YES24.COM | 전화 예매 및 문의 051-749-7651 |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 할인정보 누리집(www.hc.or.kr) 051-749-7651 | 누리집(www.hc.or.kr) 051-749-7651 | 누리집(www.hc.or.kr) 051-749-7651 | 누리집(www.hc.or.kr) 051-749-7651



장사익 & 김덕수의 우리 소리 효 콘서트



2019. 5. 31.(금) 19: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주최 해운대문화회관 | 주관 세종공연예술센터 | 티켓 지정좌석 1층 VIP석 50,000원, R석 40,000원, 2층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티켓예매 인터파크 YES24.COM | 전화 예매 및 문의 051-749-7651 |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 할인정보 누리집(www.hc.or.kr) 051-749-7651 | 누리집(www.hc.or.kr) 051-749-7651 | 누리집(www.hc.or.kr) 051-749-7651 | 누리집(www.hc.or.kr) 051-749-7651

지휘 김현호
영남국악관현악단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 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즌 5

오페라 이야기 I

오전에 펼쳐지는 오페라 아리아의 향연! 유쾌한 해설로 명품콘서트를 선보입니다.

2019. 4. 24. (수)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정병휘



소프라노 강혜정



소프라노 구민영



테너 이승우



베이스바리톤 박순기



메조 손지현

W. A. Mozart
모차르트
(1756 - 1791)

[선착순 이벤트]
음료와 빵을
무료로 드립니다.

피가로의 결혼
Opera <Le Nozze di Figaro>

서곡
Overture

다시는 날지 못하리
Non piu andrai

편지 이중창 바람에게
Sull'aria...che soave zeffiretto

빨리 와다오, 기쁨의 순간이여
Deh, vieni, non tardar

돈 조반니
Opera <Don Giovanni>

나에게 그대 손을, 연인이여
la ci darem la mano

나의 보석이여, 창가로 와다오
Deh vieni alla finestra

내 연인을 위하여
il mio tesoro intanto

나의 아름다운 우상이여,그런 말씀 마세요
Non mi dir, bell'idol mio

마술피리
Opera <Die Zauberflöte>

이 모습 정말 아름다워
Dies Bildnis ist bezaubernd schön

아 나는 알아요
ach ich fühl's

밤의 여왕 아리아
Der Héselle Rache kocht in meinem Herz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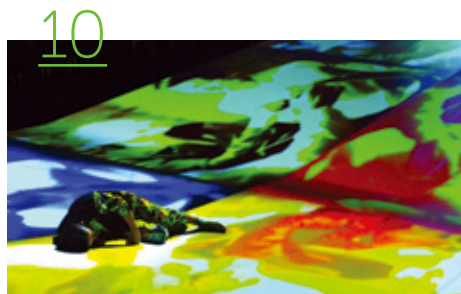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주최. 부산문화회관 부산일보사 협찬. SHINSEGAE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문의. 051) 607-6000 / 6075(성기회관) 전석 10,000원

[할인안내] 50% 장애우 (1-3급 동반1인, 4-6급 본인) / 국가·독립유공자 본인 / 의사상자 본인 및 가족 20% 마티네 패키지 / 단체 20명 이상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1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등급별 매수제한 있음) / 초·중·고·대학생 / 다자녀 가족 (자녀 3명이상 동생가족) / 문화예술인패스 소지자 본인 *본 프로그램 및 연주자는 사정에 의해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Contents



월간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9년 4월호 통권 328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용관

편집인 황해순

편집주간 이승훈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9년 3월 25일

디자인·제작 디자인글꼴

- 08 COLUMN**
극장장의 손 편지
- 10 COVER STORY**
컨템포러리 댄싱스타들의
'가을운동회' with CODA
- 12 SCHEDULE**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4월 공연캘린더
- 16 INTERVIEW**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5대 수석지휘자 김수현
- 18 BACKSTAGE OPERA**
이제는 발휘수 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캐슬린 김의 불면증에 대해...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 20 MUSEUM OF EUROPE**
아름다운 고전
오르세 미술관(Musée d'Orsay)
- 24 TRAVEL WITH YOU**
2019 경주 수학여행 다시가기
- 29 PREVIEW**
- 38 ISSUE**
2019 제36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 40 REVIEW**
- 42 PROGRAM GUIDE**
프로그램 가이드
- 54 NEW BOOK**
새로 나온 책
- 55 BSCC NEWS**
(재)부산문화회관 소식

극장장의 손 편지



(재)부산문화회관 대표

이용관

지난호 ‘극장장의 손 편지’에서 6개 시립예술단체의 예술감독 선임 결과를 이번호에서 밝히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관전포인트는 ‘어떤 예술감독이 오게 되는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제도적 혁신이나 실험이 이뤄지는가’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보다 먼저 선임의 방식과 이유를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00일 전인 작년 12월에 부산문화회관 대표로 취임하고 나서 저는 바로 6개 단체의 예술감독들이 임기만료나 개인 문제로 공석이 될 예정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술감독들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우선 과거의 모든 예술감독들이 어떻게 선임이 되었고, 어떻게 끝났는지 그 과정을 모두 들어 봤습니다. 그 결과 ‘공모’라는 방식으로 선임된 예술감독들의 성공확률이 특채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성공이라면 훌륭한 예술적 역량을 기반으로 단원들과의 호흡이나 관객의 호응 등이 좋았고, 그런 이유로 오래도록 같이 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모보다 절차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특채를 하기로 하고, 우선 ‘예술감독추천위원회’를 단체별로 구성했습니다. 대표인 저(저는 주로 우리 예술단체의 사정, 예술감독의 연봉 수준 등 참고할만한 정보를 드리는 역할만을 했습니다)를 제외한 부산과 서울지역 인사로 고르게 구성된 6명의 각 추천위원들은 각각 5명의 예술감독 후보자를 추천하고 부산, 서울, 대전 등에서 몇 차례씩 토론회를 연 끝에 각 단체별로 각각 다른 예술감독 선임 방식과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는 부산 예술인들 중에서도 테이블에 올려놓을 만한 분들을 같이 올리도록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극단은 한차례의 회의만으로 4명의 후보를 순위별로 압축하고 끝냈습니다. 비교적 쉽게 결론이 난 것이지요. 이 중 2명의 후보로 다시 압축하여 단원들의 의견도 참고하면서 예술단장(행정부시장)이 최종 1명을 선정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2명의 후보자 모두가 부산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었고, 최종 선정된 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파로 부산시립극단과도 많은 작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무용단과 국악관현악단은 좀 복잡하지만 혁신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추천위원들의 논의로 그렇게 된 것이고 저는 이를 존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무용단은 당장 한 사람의 예술감독겸 수석안무자를 선정하는 방식보다 세분의 후보자 - 물론 국내 최상급의 안무가들임

니다 - 가 시차를 두고 단원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고 이를 관객들에게도 공개한 다음 전문가의 심사결과와 단원들의 의견, 관객들의 반응 등을 반영하여 최종 한 분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원들은 최고의 안무가와 1년 안에 세 개의 작품을 만들면서 각각 다른 색깔과 개성을 체험하고 관객들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분을 3년 정도의 임기로 번갈아가면서 예술감독 역할을 하게 한다면 10년 가까이 걸릴 일을 1년 안에 경험하는 셈이지요. 그러면 무용단에 대한 시민과 예술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관객도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이는 우리 무용단원들도 처음부터 원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국악관현악단도 같은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특히 국악관현악단은 정기공연과 특별 공연을 합해 연간 20회 가까운 공연을 해야 하는데, 한사람의 지휘자와 오랫동안 얼굴을 맞대는 것은 이제 낡은 방식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국악단 역시 3명의 최고 후보자들과 차례로 공연을 하고 관객들에게도 공개합니다. 이 역시 무용단에서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합창단 역시 수석지휘자 후보 3명을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최종 선정 방식은 더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방식은 지금 전국 예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24명의 경향 각지에서 모인 추천위원들의 입을 통해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좋은 예술감독 내지 수석지휘자를 선임한다면 아마도 전국으로 이런 방식이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6개의 단체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가기에는 관리도 복잡하고 예산도 넉넉하지 않으며 또한 예술적 안정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은 종전과 같이 바로 한 분의 예술감독을 모시기로 했고, 특히 청소년 교향악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은 추천제의 경우 역으로 새롭게 부각되는 젊은 지휘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공모를 통해 각각 한 분씩의 좋은 지휘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시도립예술단체들은 대부분 관객기반이 취약한 것이



부산시립극단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술단체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크게는 국가의 순수예술 정책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어렸을 때부터 예술을 가까이 하기에는 먼 학교 교육, 예술이 아니라도 수많은 볼거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관객이 적은 것은 적은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수십 년을 운영해 온 틀을 이제는 깨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 저런 혁신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객들의 관심을 더 크게 일으키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앞으로는 무용, 국악관현악단 등은 각각 3명의 후보를 놓고 공연을 벌이게 됩니다. 저희는 온라인 상에 커뮤니티를 만들어 시시각각 이 소식과 화제를 올릴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타의 등장 등 많은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이들이 펼치는 공연에 가까이 오셔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도 즐기시고 재미삼아 스스로 평가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올려도 보세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COVER STORY

커버스토리

예술의 대중화, 대중의 예술화를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안무가들이 뭉쳤다

컨템포러리 댄싱스타들의 '가을운동회' with CODA

4월 13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예술의 대중화, 대중의 예술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현대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온 현대무용협동조합 ‘콥코다(COOP_CODA)’가 춤으로 만나는 운동회에 부산시민들을 초대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안무가들이 선보이는 ‘가을운동회 with CODA’는 어린 시절 청군과 백군으로 팀을 나눠 겨룬 운동회가 아닌 모두가 함께 하는 운동회처럼, ‘생각의 거리는 좁게’ ‘공간의 거리는 넓게’ ‘시각의 차원을 바꿔’라는 3가지 주제 아래 현대무용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더불어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를 마련한다.

가을운동회가 주는 도전과 화합, 소통

현대무용협동조합 사무국 김소미

“현대무용은 난해하다? 현대무용은 추상적이다?”는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편견이다. 4월 1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현대무용 ‘가을운동회 with CODA’는 현대무용협동조합 ‘콥코다(COOP_CODA)’의 모토에 걸맞게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공연이다.

현대무용협동조합 ‘콥코다(COOP_CODA)’는 기존의 소수층만이 향유하는 문화예술의 범주를 벗어나 ‘코다이즘(CODAIISM)’이라는 모토 아래 지난 2017년 6월 창립했다. ‘콥코다(COOP_CODA)’는 컨템포러리댄스(Contemporary Dance)와 커뮤니티댄스(Community Dance)에서 따온 말로, ‘코스프레처럼 즐겁고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라는 의미로 순수 예술이 아닌 대중예술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자는 현대무용의 새로운 시도이다.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성한 이사장은 현재 서울 강동아트센터 상주예술단체로 있는 세컨드네이처 댄스 컴퍼니의 예술 감독으로 있으며 세련된 안무와 상상력을 뛰어넘는 연출로 현대무용 상주예술단체로서 그 역량과 가능성을 증명해오고 있다. 세컨드네이처 댄스 컴퍼니는 지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주예술단체로 있으며 ‘기억의 지속’, ‘40712’, ‘이방인’ 등 매년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면서 강동구 지역

민들의 문화예술 경험 확산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트러스트 무용단, EDx2, STL 아트 프로젝트, 고블린파티, 댄스 컴퍼니 더 바다, 로 댄스 프로젝트, 엠비규어스, 오 마이 라이프 무브먼트, 파사무용단 등 국내 최정상급 현대무용 10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축제연출가 임영택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고 ‘예술의 대중화, 대중의 예술화’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현대무용협동조합 ‘콥코다(COOP_CODA)’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과 창작의 고통, 생활고에 시달리는 많은 현대무용수를 위한 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한 인프라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예술교육과 진로체험학습 기회제공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대무용 대중화를 통한 안정된 무용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 부산관객과 만나는 창작 현대무용 ‘가을운동회’는 현대무용협동조합 ‘콥코다(COOP_CODA)’가 지난 2017년 창립 후 선보인 창립공연으로, 대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현대무용협동조합의 선언적 의미를 가진 공연이다. 어릴 적 청백전의 깃발 속에 친구들과 함께 즐거웠던 가을운동회를 모티브로 했지만, 단순히 가을운동회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 가을운동회 그 자체가 주는 도전과 화합, 소통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기존의 틀을 깨버린 연출과 공간, 안무, 관객과의 소통에 주안점을 둔 공연으로, 무용수와 관객 모두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가슴 설렘과 흥이 넘치는 무대로 모두에게 가슴 뛰는 열정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과거의 기억을 추억이란 이름으로 안고 살아가는 존재이며, 이를 영양분 삼아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을 얻기

도 한다. 우리들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가을운동회는 한 마을에 축제와도 같았다. 그러나 현재 약 6,000개의 초등학교 중 500개도 채 되지 않는 학교에서만 운동회가 열리는게 현실이 되었다. 운동회 시작을 알리는 교장선생님의 말씀, 운동회의 상징적인 응원가, 2인3각 달리기, 이어 달리기,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공동체의 연결망을 연상하게 하는 줄다리기, 점심시간 등 운동장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과 그 속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그리고 관객들 모두는 이 작품을 통해 추억으로 시간여행을 할 것이다. 지금 시대에 운동회가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 감동적인 연출로 때로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특별한 경험의 시간이 될 것이다.



4

2019 APRIL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첼** 챔버홀
아 야외광장 **사** 사랑채극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회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회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u>1</u>	<u>2</u>
<u>7</u>	<u>8</u>	<u>9</u>
<u>14</u>	<u>15</u>	<u>16</u>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0회 정기연주회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Ⅷ ‘등정’ 19:30 대 2만원·1만5천·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u>21</u>	<u>22</u>	<u>23</u>
<p>폴 포츠 내한공연 17:00 대 9만원·7만원/(주)좋은콘서트(1833-4581)</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Friends of Busan 19:30 대 예현드림(755-0682)</p> <p>김미현 피아노 리사이틀 ‘방랑과 전쟁’ 19:30 중 2만원·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제53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아스라이 한겨레가’ 19:30 대 2만원·1만5천원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626-8081)</p> <p>이윤수 피아노 리사이틀 19:30 중 전석 3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u>28</u>	<u>29</u>	<u>30</u>
<p>제98회 전국무용예술제 10:00, 13:00 대 정성철(010-5284-8880)</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바리톤 김태우 리사이틀 19:30 첼 초대/김태우(010-9903-1258)</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WED	THU	FRI	SAT
<p>3</p>	<p>4</p>	<p>5</p> <p>컨템포디보 콘서트 '보헤미안 랩소디' 19:30 대 5만원·3만원·2만원/부산문화(1600-1803)</p>	<p>6</p> <p>김혜미 플루트 독주회 17:00 책 초대/김혜미(010-8947-7245)</p>
<p>10</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1</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2</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3</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컨템포러리 댄싱스타들의 '가을운동회' with CODA 17:00 중 4만원·3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제8회 트라움 리사이틀 18:00 책 초대/트라움앙상블(010-8593-3045)</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7</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8</p> <p>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제58회 정기연주회 '운명' 19:30 대 3만원·2만원·1만원 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010-3838-4291)</p> <p>2019부산음악축제 I '피아노 그랜드페스티벌' 19:30 중 무료/(사)부산음악협회(634-1295)</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9</p> <p>한울림합창단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연주회 20:00 대 초대/한울림합창단(010-4909-7444)</p> <p>2019 부산음악축제 II '신인음악회' 19:30 책 무료/(사)부산음악협회(634-1295)</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p> <p>Azamara Evening Event 18:00 중 (주)아주인센티브(010-9322-2326)</p> <p>2019 길병민 봄내음 콘서트 '한국 가곡 & 오페라 갈라' 17:00 책 전석 5만원/길병민(010-3337-9294)</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4</p> <p>(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 5 '오페라 이야기 I' 11:00 중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5</p> <p>제4회 사랑나눔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대 초대/사랑나눔합창단(755-5311)</p> <p>제1214회 MBC목요음악회 '샬 오카리나 그리고 하모니카' 19:30 중 초대/(사)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p> <p>소프라노 이기쁨 귀국독창회 19:30 책 전석 1만원/이기쁨(010-6647-6676)</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6</p> <p>부산시립국악현악단특별연주회 '4월의 노래, 아리아리랑' 19:30 대 1만원·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p> <p>한·이 수교 135주년 기념 오페라축제 'La Notte Italiana' 부산성악가페스티벌 19:30 중 8만원·5만원·3만원/솔오페라단(1544-9373)</p> <p>ANK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19:30 책 전석 8천원/ANK플루트앙상블(010-5406-4779)</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7</p> <p>노엘합창단 제60회 정기연주회 'You are the Music' 19:00 대 초대/노엘합창단(010-5796-1115)</p> <p>소프라노 박소영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 데뷔기념 토크콘서트 18:00 중 전석 3만원/윌클래식(070-4190-1289)</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전시실</p> <p>제29회 국제서화예술전 4월 5일(금)-4월 7일(일) 국제교류서도협회 010-4448-9553</p> <p>제37회 대한민국서예대전 대한민국 미술대상전 4월 12일(금)-4월 14일(일) (사)전국서화예술인협회 010-6269-7456</p> <p>제1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부산공모전 4월 16일(화)-4월 20일(토) (사)국민예술협회 부산지회 245-2521</p> <p>제39회 전국서도민전 4월 26일(금)-4월 30일(화) (사)한국서도예술협회 441-7081</p>	

4

2019 APRIL

부산시민회관

BUSAN CITIZEN'S HALL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소 소극장 아 야외광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u>1</u>	<u>2</u>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9 춤추는 동화 '날 잡아봐라' 토끼와 거북이 11:00 소 전석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9 춤추는 동화 '날 잡아봐라' 토끼와 거북이 11:00 소 전석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
<u>7</u>	<u>8</u>	<u>9</u>
	2019 부산시립극단 제64회 정기공연 '물의 정거장' 19:30 소 전석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5)	2019 부산시립극단 제64회 정기공연 '물의 정거장' 19:30 소 전석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5)
<u>14</u>	<u>15</u>	<u>16</u>
어린이뮤지컬 '신비아파트 시즌2-고스트볼X의 탄생' 11:00, 14:00, 16:30 대 6만원·5만원/등그라미그리기(1577-4868)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부산 인디뮤지션과 함께하는 '스타일은 영원하다' with 노만 파킨슨展 17:00 소 전석 2만원(전시관람료 포함)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	
<u>21</u>	<u>22</u>	<u>23</u>
제32회 청소년무용경연대회 10:00 소 (사)부산무용협회(632-5116)		
<u>28</u>	<u>29</u>	<u>30</u>
가족뮤지컬 '번개맨과 블랙홀 대모험' 양코르-부산 11:00, 14:00, 16:30 대 6만원·5만원/힘컨텐츠(주)(1688-3805)	가족뮤지컬 '피노키오의 우당탕탕 모험극' 10:30, 11:40, 13:00 소 예술공장 승승(513-3054)	가족뮤지컬 '피노키오의 우당탕탕 모험극' 10:30, 11:40, 13:00 소 예술공장 승승(513-3054)
제6회 모리문화예술원 '두드림콘서트' 18:00 소 초대 다이아엔터테인먼트(010-3064-6454)	가족뮤지컬 '피노키오의 우당탕탕 모험극' 10:30, 11:40, 13:00 소 예술공장 승승(513-3054)	가족뮤지컬 '피노키오의 우당탕탕 모험극' 10:30, 11:40, 13:00 소 예술공장 승승(513-3054)

WED	THU	FRI	SAT
<p>3</p> <p>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9 춤추는 동화 '날 잡아봐라' 토끼와 거북이 11:00 소 전석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4</p> <p>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9 춤추는 동화 '날 잡아봐라' 토끼와 거북이 11:00 소 전석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5</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금난새와 함께하는 '스타일은 영원하다' with 노만 파킨슨展 11:00, 15:00 대 2만원·1만원(전시관람료 포함)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9 춤추는 동화 '날 잡아봐라' 토끼와 거북이 11:00 소 전석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6</p> <p>제5회 부산국제폴킴퍼연습 10:00 대 전석 2만원 코리아뉴에이지댄스협회(753-901)</p>
<p>10</p> <p>◆ 2019 부산시립극단 제64회 정기공연 '물의 정거장' 19:30 소 전석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5)</p>	<p>11</p> <p>◆ 2019 부산시립극단 제64회 정기공연 '물의 정거장' 19:30 소 전석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5)</p>	<p>12</p> <p>◆ 2019 부산시립극단 제64회 정기공연 '물의 정거장' 19:30 소 전석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5)</p>	<p>13</p> <p>어린이뮤지컬 '신비아파트 시즌2-고스트볼X의 탄생' 11:00, 14:00, 16:30 대 6만원·5만원/동그라미그리기(1577-4868)</p> <p>◆ 2019 부산시립극단 제64회 정기공연 '물의 정거장' 17:00 소 전석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5)</p>
<p>17</p> <p>CBS 윈드심포니오케스트라 3·1운동 100주년 '하나되는 대한민국' 19:30 대 초대/부산CBS(636-0050)</p>	<p>18</p> <p>웃음박사 조상영의 웃음과 노래 한마당 14:00 소 조상영 웃음연구소(010-4567-2233)</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9 시민뜨락축제_김소율, 해피앙상블' 12:20 아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19</p> <p>웃음박사 조상영의 웃음과 노래 한마당 14:00 소 조상영 웃음연구소(010-4567-2233)</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9 시민뜨락축제_부산시립합창단, Sun & Moon Project' 12:20 아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20</p> <p>제47회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 10:00 대 무료 신라대학교 창조공연예술학부(999-5301)</p> <p>제47회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 10:00 소 무료 신라대학교 창조공연예술학부(999-5301)</p>
<p>24</p> <p>뮤지컬 인형극 '손을 깨끗이 씻어요' 10:30 대 초대 부산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860-3297)</p>	<p>25</p> <p>제2회 글로벌금융판매 힐링콘서트 15:00 소 글로벌금융판매(02-2088-1637)</p>	<p>26</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9 시민뜨락축제_부산시립합창단, Sun & Moon Project' 12:20 아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27</p> <p>가족뮤지컬 '번개맨과 블랙홀 대모험' 양코르-부산 11:00, 14:00, 16:30 대 6만원·5만원/힘컨텐츠(주)(1544-1555)</p> <p>4월의 향연 18:00 소 초대/청.흥.동 예술단(010-2828-9085)</p>
		<p>전시실</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노만 파킨슨'展_스타일은 영원하다 2월 15일(금)-4월 30일(화) 일반 8천원, 초중고·경로우대 3천원 패션전공 대학생 4천원, 유아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p> <p>◆ 관람시간 오전 11:00~ 오후 8:00 (오후 7:00 입장마감)</p> <p>◆ 도슨트 운영 월-목요일 오전 10:00, 오후 3:00 (15인 이상 단체 예약) 금-일요일 오후 1:00, 3:00(일반)</p>	

반갑습니다



66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오랜 역사와 훌륭한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
이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전통을
함께 이어나갈 수 있어 기쁘고
한편 어깨가 무겁습니다. 99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5대 수석지휘자 김수현

지난 3월 5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5대 수석지휘자로 취임한 김수현 씨는 지휘자 공석이 있었던 만큼 그간의 공백기를 메우고 합창단을 제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요즘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어른들보다 더욱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합창이 서로에 대한 배려와 화합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단원들이 음악을 통해 실생활에서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생활의 미덕을 쌓을 수 있도록 지도에 힘써나가겠습니다.”

전통이나 명성은 갖춰진 실력이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김수현 지휘자. 역대 지휘자들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발판삼아 앞으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최고의 실력으로 우리나라 음악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김수현 지휘자는 부산에서 태어나 7살 때까지 유년시절을 보냈다. 부산을 떠나서도 친한 친구가 이 곳에 있어 종종 부산을 찾았다는 그는 바다를 무척 좋아해 바다가 아름다운 부산에서의 새로운 출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김수현 지휘자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의 인연도 각별하다.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출신이었던 김수현 지휘자는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 같은 전국적인 행사가 있는 날이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무대에서 만나 교류를 갖기도 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1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합창단 생활을 직접 경험했기에 단원들과의 교감만큼은 자신 있다.

그가 지휘자로서의 길을 걷게된데도 소년소녀합창단 활동이 가장 영향이 컸다. 당시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이끌었던 권영우 지휘자의 손에 이끌려 ‘한국합창심포지움’에 따라다니면서 국내외 훌륭한 지휘자들을 만나며 지

휘 세계에 눈을 떴다는 김수현 지휘자는 꿈을 이루기 위해 당시 한국 합창음악의 대부인 윤학원 교수가 있던 중앙대학교 작곡과에 입학했다. 졸업 후에는 본격적인 지휘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유학, 인디애나 주립대학 대학원에서 합창지휘로 석사학위를, 일리노이 주립대학원에서 합창지휘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 2014년 5월 귀국 후 월드비전 합창단 전임지휘자로 연주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016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주최하는 ‘Friendly Concert’에도 참가했던 김수현 지휘자는 당시 그가 지도하고 있던 월드비전 합창단에서 3년간 함께한 첫 제자들의 졸업연주회라 더욱 기억에 남는다.

취임 후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부산시민과의 만남을 가져오고 있는 김수현 지휘자. 4월 21일 폴 포츠 내한공연을 비롯해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1회 정기연주회(5월 17일), 을숙도소년소녀합창제(5월 25일)에 이어 5월 31일 취임연주회를 통해 시민들과 정식으로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부산시를 대표하는 소년소녀합창단인만큼 부산시민들이 사랑해주는 합창단, 그리고 지역 어린이들이 합창단 활동을 통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합창단이 되게 목표입니다.”

김수현 지휘자는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 속에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좋은 무대, 좋은 음악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예정이다.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이제는 밝힐수 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캐슬린 김의
불면증에 대해...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이의주의 100자 스토리 '세빌리아의 이발사'

세빌리아의 늙은 의사 바르톨로외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아름답고 젊은 로지나는 재력과 폐기의 알마비바 백작과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된다. 음흉한 바르톨로외의 방해로 갖가지 역경과 시험, 오해들을 만물박사 피가로의 재치와 지혜로 모두 물리치고 결혼에 성공하게 된다. Viva Figaro!!!

프로젝트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연출한 2014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을 만든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으로 인해 한국인, 아니 동양인 최초로 이탈리아 베르디 극장에서 연출을 할 수 있었고, 또 해외 진출의 길이 열리기 시작해서 국제콩쿠르에 심사위원장으로까지 갈 수 있었으니 그야말로 효자 작품이다. 벌써 5년 전의 일인데 바로 엇그제 있었던 일인 것 같다.

'세빌리아의 이발사' 프로젝트에는 미국인 지휘자를 비롯 이탈리아, 영국, 중국, 독일, 그리고 한국 등 그야말로 다국적 제작팀이 참가했는데 그중 가장 핫 이슈는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10년간 주역가수로 활약중인 캐슬린 김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오페라 공연을 나와 하게 되는 것이었다. 늘 그렇듯이 나는 연출 제작 디자이너들은 물론 극장 스태프들과 심혈을 기울이며 작품 완성에 매진하고 있었다. 연출자에게 가장 떨리는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리허설도 아니고, 첫 공연을 올리는 날도 아닌, 모든 캐스트들과 첫 만남이 있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이 글을 통해 고백하고 싶다. 이날은 연출자vs지휘자, 연출자vs성악가들의 일종의 기싸움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연출의 경우는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임하지 않으면 망신뿐만 아니라 무시당할 수 있다. 작품에 대한 해석과 분석, 캐릭터 제시는 물론 무대 및 의상 디자인에 관한 브리핑을 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연출로서 모든 이들에게 제

대로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첫 미팅날 오전 10시 5분전, 나는 극장 지하주차장에서 시계를 보고 있었다. 늦지도 이르지도 않은 시간에 딱 맞춰 연습실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중이었다. 이미 나를 제외한, 극장 예술감독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과 지휘자, 성악가들이 자리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다는 정보를 조연출을 통해 들었다. 시간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연습실로 올라갔다. 우리말로 시작해서 영어와 이탈리아어로 간단하게 나에게 대해 소개하고 전체적인 무대와 이번 작품의 그림을 얘기하였다. 그리고 난후 모두 각자 자신의 맡은 배역과 이름을 얘기하였다. "저는 소프라노 김지현입니다. 이번 오페라에서 로지나 역을 맡았습니다". 영? '캐슬린이 아니고 '김지현' 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지금은 세계적인 에이전시 컬럼비아 소속의 아티스트로서 소위 잘나가는 지휘자가 되어있는 크리스토퍼 앨런(Christopher Allen)은 이번 작품을 통해 지휘자로서 경력을 더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첫날부터 엄청난 열의로 출사표를 던졌다. 그 외 많은 사람들도 침을 꿀꺽 삼키며 긴장과 기대감을 갖고 작업에 임한다는 다짐을 했다.

1막부터 차근 차근 작품의 동선을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캐슬린 김이 등장하는 1막 2장 로지나의 아리아 '방금 전에 들린 그의 음성(Una voce poco fa)'을 부르는 장면이 나왔다. 나는 노래하기 전 각각의 캐릭터가 가진 성격과 무대에서 상징하는 것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그 다음 동선들을 아주 집약적으로 설명했다. 로지나는 역의 제2캐스트는 이탈리아 출신의 메조소프라노였는데 오페라 인생 4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당시 박명기 예술감독의 작품에 관한 깊은 고찰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캐스팅이었다. 원래 작품의 로지나 배역이 메조소프라노였기에 유니크하게 다른 두 파트의 대비를 통해 색다른 공연을 보여주고자 했다. 모두들 숨죽이는 가운데 그녀의 첫 연습 장면을 보는데, 그때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여기 있는 제작진 전체를 통틀어 가장 스타였기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다. 캐슬린 김에게 로지나는 처음이었지만, 그녀의 물 흐르는 듯한 연기와 캐릭터에 대한 이해, 그리고 특히 나의 의도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 사람들이 속으로 이구동성으로 '연습을 하는데 왜 소리를 풀보이스로 안내 지하는 얘기가 내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나와 지휘자는 그녀의 연기와 디션 그리고 리듬감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했다.

지휘자를 비롯한 주요 캐스트들은 같은 호텔에 서 묵기 때문에 오전 조식 시간이면 거의 다 만나게 된다. 대부분 조식 클로즈 1시간 전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 편이다. 나는 길게 하며 여유를 즐기는 스타일이라 제일 먼저 내려가서 조식을 가장 늦게 끝낸다. 영국서 온 음악코치와 같이 내려온 캐슬린 김에게 아침인사를 하는데 어제의 그 생기있는 모습이 아닌, 아침이라 그런지 조금 피곤해 보였다. 다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결국 우리 '세빌리아의 이발사'팀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였다. 내가 캐슬린에게 "어제 연습 괜찮았죠?"하고 묻는데, 세상애나! 나에게 문자로 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이 한숨도 못자서 말하기가 불편하다고, 미안하다고 양해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아! 시차 적응이 아직 안됐구나...' 그래서 연습실에서 거의 대답만 하고 질문이 없었던 것이다. 음... 잠을 정말 잘 자는 나로서는 이해는 안 가지만, 세계를 누비며 다니는 그녀가 시차적응의 발목에 잡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글의 재료가 된 셈이다. 우리는 그녀의 편안한 수면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한의사를 찾아가 약을 지어보라고 하고, 교회에 새벽기도를 다녀오는 방법, 객실을 바꿔보라고 하는 등 같은 팀으로서 염려를 하고 갖가지 차와 음식들을 얘기하고 실제로 해보기도 했지만 효과는 없었고, 연습실에서만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고 그 외 시간동안은 언제나 힘이 없어 보였다.

전막의 동선 구성이 마치고, 공연날도 가까워지고 있었다. 단 한번도 액팅 연습에서 소리를 내지 않던 그녀는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음악 리허설에서 엄청난 소리와 기량을 뽐내게 된다. 나는 그때 무대 셋트 셋업과 조명 작업을 하느라 보지는 못했는데, 정보원들이 문자로 알려줬다. 시쳇말로 '완전히 쫄다'고, '역시 메트 가수는 다르다'고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노래를 불렀다고 했다. 나는 드디어 '그녀가 불면증에서 해방되었구나'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2!!! 다음날 조식 타임에서 만난 그녀는 어제의 노래하는 모습의 소문과는 달리 반복된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이었다. 나중에 그녀에게 들은 얘기인데, 불면증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고, 오케스트라 음악 연습에서는 당연히 모두가 최선의 기량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무대에서 하는 것과 같은 에너지로 한다는 것이다. 아! 그놈의 잠이 그녀의 발목을 잡다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하는 오지랖을 부리기에는 다른 것들에 대한 일들



이 산적해 있어서, 속으로 본인이 알아서 잘 해결하기를 바랬다.

나의 생일이 이 기간중에 있어서, 지휘자 크리스토퍼의 깜짝 피아노 연주로 서프라이즈 축하도 받는 등 이루 말할수 없는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뒤로 하고, 드디어 첫 공연날이 밝았다. 모두가 긴장하고 숨죽이는 가운데 로지나의 아리아 장면이 시작됐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로지나의 방이 나오고 그녀가 전주에 맞춰 걸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3!!! 진정한 서프라이즈는 그 순간이었다. 그날 당시 캐슬린의 공연 영상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 아리아 시작 중간에 폭발력있는 콜라투라의 소리와 기교에 낮이 나간 관객들이 간주부분에서 그녀의 불면증에 대한 보답이라도 하듯 곡 중간에 박수가 나올 수 없는 그 부분에서 그녀의 예술혼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나 역시 그 당시 전율을 글로 쓰는 이 순간 잊을수 없다. 그 당시 캐슬린의 공연 영상은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iNrk0DKsU1o>)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참 아름다운 로지나의 노래 소리는 마치 방금 들린 것처럼 내 귓가에 선명하다. 대 성공!! 로지나 캐슬린 지현 김은 이렇게 한국 오페라 무대에 데뷔를 했다.

그럼 그녀의 불면증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다구요? 그녀는 그날 첫 공연 이후로 아주 편안한 수면을 하게 되면서 나머지 공연도 성공적으로 마쳤을 뿐 아니라 이런 한국과의 인연이었는지 한양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임명되어 세계는 물론 한국에서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MUSEUM OF EUROPE

유럽 박물관 기행

아름다운 고전 오르세 미술관 (Musée d'Orsay)

글 김성민 부산대학교 외래교수, 유로자전거나라 교육팀장
사진 이상호 유로자전거나라 가이드

하늘이 안보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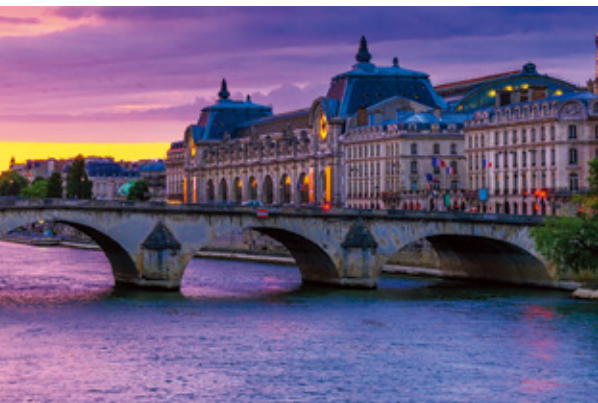
미세먼지 때문에 연일 답답하다. 어린 시절에는 봄에 찾아오는 황사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마다 미세먼지 정보부터 찾아보게 된다. 얼마 전 유럽여행 중인 지인이 사진을 보내줬는데 정말 눈이 부시게 푸른 하늘이었다. 유럽사회도 예전에는(일찍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해) 공기가 무척 안 좋았다고 하는데 오랜 노력을 통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인의 문자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눈이 부시게 푸른 하늘, 그리고 내 시선을 막는 고층빌딩이 없음.”

예전에 비해 하늘이 점점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을 막는 답답한 고층빌딩들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고층 빌딩이 거의 없어 탁 트인 하늘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유럽 대부분의 도시들이 참 부럽기만 하다. 특히 오늘 소개하는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은 파리 사람들의 높은 의식이 없었더라면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흉물스러운 고층 건물이 세워질 예정이었다고 한다.



1-2 센 강에 위치한 오르세 미술관

3-4 기차역이었던 흔적이 남아있는 시계



의식 있는 시민들이 지켜낸 건물

원래 기병대 막사가 있었던 자리에 1838년, 건축이 이루어져 오르세 궁전이 만들어진다. 이 건물은 외무성, 최고재판소, 국가평의회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1871년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 완전히 폐허가 된다. 이후 철도 회사에서 정부로부터 이 땅을 매입하고 철도역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1900년 7월, 만국박람회를 위해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완성되었다. 당시 오르세 기차역은 프랑스 기술과 예술의 상징과도 같았다. 역을 지나다니는 기차는 전기의 힘으로 움직여서 기존의 증기기관에서 내뿜는 자욱한 연기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미적 아름다움을 위해 근대적인 철골 구조물들을 회반죽과 석고조각으로 다 가려버렸다. 오르세 역은 파리 서부와 남부를 잇는 가장 중요한 철도역으로 자리 잡게 되지만 애석하게도 빠른 철도의 발전으로 인해 1939년에 폐쇄되고 만다.

1970년경 파리 시장은 센 강변에 위치한 오래된 역을 헐고 800여 개의 방이 있는 고층 호텔을 건축하려고 했으나 지식인들과 여론이 중심이 되어 정부의 '야만적인 재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를 펼치기 시작한다.(파리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건물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결국 1974년부터 원형을 대부분 유지한 상태로 오르세 역 내부를 미술관으로 바꾸는 사업이 시작되었고 1979년, 오르세 미술관 공모전으로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개조되기 시작한다.

시대를 반영한 새로운 미술그룹의 등장

19세기 파리는 혁신과 발전의 경연장이었다. 당시 전기, 가스, 기차, 건진지, 엘리베이터, 수세식 화장실 등 다양한 발명품들이 만들어졌는데 회화사에서 중요한 발명품 세 가지를 정한다면 카메라, 기차, 튜브 물감이라 말할 수 있다. 미술사를 살펴보면 추구하는 방향이나 색채와 형태의 대립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회화를 통해 대상의 사실적인 재현에 중심을 두었다. 하지만 19세기 카메라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자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거부하는 무리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었다. 거부하는 무리는 오히려 기존 회화의 법칙을 더 이념화시켰고 실내에서 정해진 규칙으로 구도와 색채를 정하고 대상을 재현시켰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화가들은 카메라가 순간의 빛에 따라 다양한 색채를 표현하는 것을 주목하고 새로운 방법과 법칙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현재 그들을 인상주의 화가들이라

5 오르세 기차역 당시 모습

6 오르세 미술관 내부

고 부른다.

두 번째로 인상주의 화가들이 빛을 찾아 멀리 외곽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차의 등장이었다. 1825년 영국에서 최초의 기차가 만들어지자 순식간에 유럽에도 기차와 철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기차가 만들어지면서 날씨와 환경에 상관없이 저렴하고 안전하게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인상주의 화가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다양한 지역을 다니며 빛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튜브 물감의 발명이다. 미국의 화가였던 존 고프 랜드(John Goffe Rand, 1801~1873)는 1841년 금속튜브물감의 특허권을 신청하게 되는데 야외에서 그림을 그려야했던 인상주의 화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실제 화가 르누아르는 튜브 물감이 없었으면 인상주의 화가들조차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국가주도의 미술경연대회인 살롱전에 당선되는 것이 화가로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말하자면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유로운 소통을 국가가 장악하고 몇몇의 심사위원들이 그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예술의 자유로운 정신은 사라지고 성공하기를 원했던 화가들은 오로지 심사위원들이 좋아하는 주제와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다. 즉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예술은 여전히 전통만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래됨과 새로움에 대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오르세 미술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무조건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지켜낸 파리 사람들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미술관 내부에서 전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작품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던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들이다. 바꿔 말하면 그 시대를 앞서갔던 작품들이었다.(물론 살아 생전 몇몇 화가들의 작품들은 인정을 받았지만 초기에는 대부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데 1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전통을 지켰던 오르세 미술관과 그 속을 채우고 있는 새로움의 인상주의 그림들 모두를 아름다운 고전으로 부르고 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한다. 하지만 속 시원하게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시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현상이나 예술사도 결국 그 당시 사람들은 정의내리지 못했고 후대 사람들에 의해 정의되어지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중요한 것은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안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존재하며 오늘 오르세 미술관과 같이 오래된 것을 지키는 지혜와 그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가 동시에 요구된다는 것이다.(역사를 살펴보면 버려야 될 것을 지키고, 지켜야 될 것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것을 지켜야 하며 어떤 것을 버리고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지 잘 판단하는 지혜를 오르세 미술관과 인상주의 화가들을 통해 얻었으면 한다.



테마가 있는 여행

2019 경주 수학여행 다시가기

지난 2006년 3월 ‘경주 수학여행 다시가기’로 첫 발을 내딛은 ‘정기회원 테마여행’은 그동안 여행의 설렘 속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색다른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회원 가족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테마여행 13주년을 맞아 올해 3월에도 정기회원들과 경주로 추억의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1 황룡사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복원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는 황룡사 역사문화관

2,3 커다란 바위 4면에 불상이 새겨져 있는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3월 테마여행이 펼쳐졌던 지난 3월 8일, 따사로운 봄기운 속에 떠나는 봄여행에 회원들의 얼굴에는 설렘으로 가득하다. 한시간 반을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지난 2013년 새롭게 문을 연 경주 황룡사 역사문화관. 매년 경주여행을 함께 해오고 있는 문화해설사 최승욱 씨가 정기회원들을 반갑게 맞는다.

황룡사지 바로 옆에 자리한 황룡사 역사문화관은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유적과 유물을 재현, 전시하면서 황룡사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복원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신라 진흥왕 14년(553년)에 창건이 시작되어 선덕여왕 14년(645년)까지 4대왕 93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완공된 황룡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호국사찰로, 특히 80m 가량의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높이가 80m이면 지금으로 치면 15층 아파트를 2개 세운 높이로, 지난 1969년 82m의 한진빌딩(KAL빌딩)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한국 역사상 최고 높이 건물로 알려졌다. 또, 황룡사 금당 벽에는 소나무 그림이 너무 생생하여 새들이 앉으려다 부딪혀 떨어졌다는 술거의 ‘노송도(老松圖)’가 그려져 있었다고 전해지며, 금당 뒤 강당에서는 자장이 보살계본을, 원효가 금강삼매경론을 강설했었다고 알려져 있다. 황룡사는 1238년 몽골군 침입 때 불에 타 소실된 이후 복원이 이루어지 못하면서 현재는 건물과 탑 자리를 알려주는 초석들만 남아 있으며, 1963년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 제6호로 지정된 후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1976년부터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금동불, 풍탁(치마 끝에 매다는 장식물), 금동 귀걸이, 유리 등 유물 5만여 점이 출토되었으며 지금도 발굴이 진행 중이다.

1





2



3

역사문화관 입구에 들어서자 1/10 크기의 모형으로 제작된 황룡사 9층 목탑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8년이라는 제작기간이 소요된 이 모형탑은 총 8m 높이에 총 42,000개의 목부재와 85,000장의 동기와가 사용되었으며, 황룡사 9층 목탑의 내·외부를 섬세하고 정밀하게 복원해놓았다. 영상실에서는 화려한 3D 입체영상으로 되살린 황룡사를 스크린을 통해 만날 수 있으며, 2층 역사실에서는 창룡사의 창건설화에서부터 700년의 역사기록, 중문 복원 영상, 9층 목탑 복원 계획안 등 그동안의 고증연구와 향후 복원계획을 전시해놓고 있다. 역사문화관을 모두 둘러본 회원가족들은 최승욱 해설사와 함께 현재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황룡사지로 자리를 옮겼다. 2만여평의 광활한 황룡사터 한가운데 선 회원들은 황룡사의 장엄했던 위상을 떠올리며 찬란했던 역사의 한권을 되돌아봤다. 경주 테마여행의 두 번째 답사지는 높이 약 3.5m의 커다란 바위 4면에 불상이 조각되어 있는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보물 제121호로 지정된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은 서면의 삼존상을 중심으로 사면에 불상이 새겨져 있다. 동서남북 4면에 불상을 조각하는 것은 사방정토(四方淨土)를 상징한 것으로, 대승불교의 발달과 더불어 성행한 사방불 신앙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사면불상을 따라 한 바퀴 돌며 올 한해 안녕을 기원했던 회원들은 다음 답사지인 탐곡 마애불상군을 만나기 위해 남산 탐곡으로 이동했다. 회원들은 본격적인 오후 답사에 앞서 맛있는 찬으로 차려진 한식뷔페에서 점심 식사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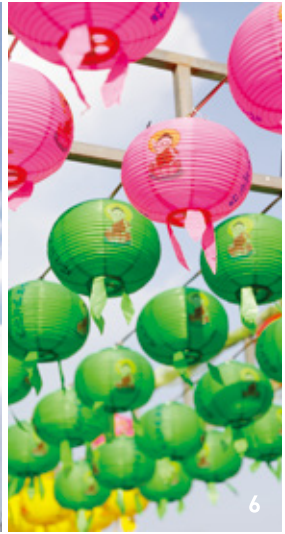
테마가 있는 여행



4



5



6

4-5-6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석굴사원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석굴암 7 커다란 바위 4면에 수십구의 불보살상과 조각들이 새겨져있는 탑골마애불상군

탑골[塔谷]은 남산 전망대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흐르는 계곡이다. 마애불상군이 있는 부처바위에 삼층석탑이 한 기 서 있는데, 그 탑 때문에 탑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보물 제201호로 지정된 탑곡마애불상군은 높이 9미터, 둘레 약 26m 되는 사각형의 커다란 바위의 네 면에 수십 구의 불보살상과 기타 조각이 새겨져 있다. 특히 이 곳 바위에는 두 기의 탑이 새겨져 있는데 마치 새겨진 탑의 형태가 황룡사 9층 목탑의 형태를 닮아 있어 9층 목탑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경주 답사의 마지막 장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석굴사원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석굴암. 일주문을 지나 석굴암으로 올라가는 길에 조그만 비석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영국인은 인도를 잃어버릴지언정 셰익스피어를 버리지 못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귀중한 보물은 이 석굴암의 불상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사학자인 우현 고유섭 선생이 석굴암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남긴 말이라고 한다.

신라 불교예술의 전성기를 이룬 경덕왕 시기, 재상이었던 김대성과 이성룡이 창건해서 20여년 후인 혜공왕 10년에 완성시킨 석굴암은 신라의 건축과 조형미술이 잘 반영되어 있다. 석굴암의 원래 이름은 '석불사(石佛寺)'였으나 '석굴', '조가절' 등의 이름을 거쳐 일제강점기 이후로 석굴암으로 불리고 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석굴이며, 1913년 이후로 일제가 수차례 해체·조립·수리하기 전까지는

원형을 유지했으나 현재는 부실 복원에 따른 습도 문제로 유리벽으로 막아 보존되고 있다. 현재는 석굴암 내부를 완전히 밀폐하고 그 안에 에어컨을 계속 가동함으로써 습기를 제거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에어컨의 미세한 소음과 진동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미세하게 훼손된다는 우려도 있다. 유리 차단막으로 막혀진 석굴암을 바라보며 다시한번 천년 전 신라인들의 뛰어난 기술과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

석굴암에서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경주 답사여행을 모두 마친 회원 가족들은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한번 되새기며 부산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7

5.10 ㉟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대구 근대역사 골목투어

조선시대에서 일제시대, 아픈 한국의 근, 현대사와 그 속에서 곳곳하게 살아온 대구 사람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구 근대역사기행을 떠난다.

일정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10:00 대구도착, 골목투어
(동산 선교사주택 → 31 만세운동길 →
계산성당 → 이상화서상돈 고택 등)
12:30 중식
13:30 진골목, 악령시 한의학문화관 등
15:30 김광석다시그리기길 탐방
16:00 부산으로 출발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업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 팀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엽서 · 전화 · 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04 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 회원

강덕수(연제구 중앙대로)	배성연(해운대구 세실로)	정소진(남구 유엔평화로)
김성덕(사상구 냉정로)	송숙애(남구 유엔로)	정연민(남구 황령대로)
김창호(남구 석포로)	유경숙(양산시 양주로)	
박문주(부산진구 백양산로)	윤영기(남구 유엔평화로)	

기존 회원

강성미(북구 만덕대로)	심상신(금정구 식물원로)	천태영(동구 자성로)
계승균(해운대구 해운대로)	윤희택(해운대구 달맞이길)	황광주(수영구 좌수영로)
김강영(동래구 복천로)	정기모(기장군 차성로)	
김용규(동래구 온천천로)	정미란(기장군 정관5로)	

Invitation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3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더 무지카 아트홀	010-7191-2878
동래문화회관	550-6611
디코소극장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087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1899-3253
성원아트홀	1899-5435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1100
숨사탕아트홀	922-4545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아트카페 움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3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12-4312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3
일터소극장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441-2733
차성아트홀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 소극장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245-5919
AN아트홀 광안	1600-0316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1688-8998
SM아트홀	1600-1602

to the Arts

물의 정거장



침묵극 '물의 정거장'은 지난 1988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공연되어 당시 지역 연극인들과 관객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던 작품으로, 31년만에 같은 공연장에서 공연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연출가 오타 쇼고는 '물의 정거장'을 비롯해 '사라지', '모래의 정거장' 등 그의 독특한 세계관과 그만의 독특한 양식을 지닌 작품들이 한국에서 공연되면서 한국 연극계에서도 익숙한 작가이자 연출가이다. 특히 '연극이

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천착해 느린 움직임과 음성 언어를 배제한 연기 스타일로 철학적 깊이를 담보하면서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리얼하게 묘사한 '침묵극'이란 장르로 현대 연극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침묵극'의 시초가 된 '물의 정거장'은 오타 쇼고 원작의 4개의 '정거장' 시리즈 중 첫 번째 작품으로, 22명의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물 소리와 간혹 흐르는 음악 외에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대 한가운데의 수돗가. 고장난 수도에서는 가는 물줄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하나 둘, 또는 무리를 지은 사람들이 여행자처럼 그곳에 머물다가 떠나간다. '물의 정거장'은 폐허의 수돗가를 스쳐 지나가는 여러 인간 군상과 인생의 여정을 통해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존재하는 삶을 그리

부산시립극단 제64회 정기공연

물의 정거장 (水の駅)

일본 현대연극의 거장이자
'침묵극'의 창시자인 오타 쇼고의
'물의 정거장'이 부산시립극단 2019년
첫 정기공연으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고 있으며, 동화처럼 해피엔딩의 결말보다는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포착하고 있다.

이번 무대는 부산 출신이자 현재 일본 극단 卍 amI 대표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 겸 연출가 김세일의 객원연출로 선보인다.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와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2003년부터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다양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세일은 그동안 '가을비', '소풍',

'AOINOUE', '유아의 꽃놀이' 등을 연출했으며, 지난 2012년 '가을비'로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은옥, 이혁우, 이현주, 김은희, 황창기, 서보기, 정마린, 이동현, 염지선, 오희경, 강범수 등 부산시립극단 단원과 HONKE Norihisa, ISHIKURO Ko, SHIBATA Yoshiki, SHINOMIYA Yoshito, SUZUKI Mirano, TAKENOUCHI Mana 등 극단 卍 amI 단원들이 무대에 선다.

한편, 공연 첫날과 둘째날인 4월 8일과 9일에는 공연 후 연출가, 배우들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공연기간동안 로비에서는 '오타 쇼고의 연극세계와 물의 정거장(水の駅)'이라는 테마로 그의 작품세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일시 4월 8일(월)-13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극단 607-3125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with ‘스타일은 영원하다
(Timeless Style)’ 노만 파킨슨展

20세기 영국의 전설적인 사진작가 노만 파킨슨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스타일은 영원하다’ 노만 파킨슨展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무대가 펼쳐진다.

4월 5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는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두 차례 마에스트로 금난새와 함께하는 ‘스타일은 영원하다’가, 4월 14일에는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오후 5시 부산의 인디뮤지션과 함께하는 ‘스타일은 영원하다’가 열린다. 특히 이번 무대는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시민들에게 공연과 전시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공연 전에는 전시 큐레이터의 상세한 해설과 함께 ‘노만 파킨슨’展을 둘러볼 수 있다.

패션지 ‘보그(Vogue)’, ‘하퍼스 바자(Harper’s Bazaar)’의 사진가로 잘 알려진 노만 파킨슨은 당시 전형적이었던 실내 스튜디오 촬영 형식을 깨고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야외 배경의 패션 사진을 만들어 낸 선구자이다. 미국판 패션지가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던 1960년대 영국판 패션지가 고유의 스타일로 부상하는 데 일조한 사진가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열린 서울 회고전에 이어 지난 2월 5일부터 부산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영국

의 낭만적인 전원 풍경과 활기찬 도시, 음산한 런던의 뒷골목에 서부터 왕실 가족이 머무는 화려한 궁전에 이르기까지 그가 50여 년 동안 작업한 총 15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전시명인 ‘스타일은 영원하다(Timeless Style)’는 노만 파킨슨의 작품이 50여 년 전인 당대의 패션 양식이나 인기 모델, 연예인, 왕실의 주요 행사를 소재로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의 예술가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특히 전시실은 노만 파킨슨의 ‘미(美)’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담은 버건디 컬러와 그가 즐겨 입던 실크 소재의 블라우스를 닮은 커튼으로 전시장 곳곳을 채움으로써 관람객이 1940년대 영국 패션 쇼 무대 뒤를 탐색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



— 01 —
마에스트로 금난새와 함께하는
‘스타일은 영원하다’

4월 5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노만 파킨슨展 전시관람료 포함)

한국의 또 다른 스타일리스트 마에스트로 금난새가 함께하는 ‘스타일은 영원하다’는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지휘자 금

난새의 해설음악회로 꾸며진다.

‘행복을 선사하는 무대 위의 나는 새’ 금난새는 서울대학교 졸업 후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에서 라벤슈타인을 사사했으며 1977년 한국인 최초로 최고 명성의 카라얀 콩쿠르에서 입상해 데뷔했다. 유러피안 마스터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거쳐 모스크바 필하모닉, 독일 감머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했으며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KBS교향악단 전임지휘자와 수원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 인천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다. 금난새는 지난 1998년 ‘벤처 오케스트라’인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현, 뉴월드 필하모닉)를 창단하고 현재 성남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라움아트센터 예술감독으로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금난새가 음악감독으로 있는 뉴월드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그리그 모음곡 ‘홀베르그의 시대에서’ 작품 40을 비롯해 치마로사 ‘오보에 협주곡’,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여름’ (협연/옥자인), 레스피기 ‘류트를 위한 옛 무곡과 아리아’ 중 ‘파사칼리아’ 등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친절한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02

부산 인디뮤지션과 함께하는 ‘스타일은 영원하다’

4월 14일 일요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전석 2만원(노만 파킨슨展 전시관람료 포함)

부산 인디뮤지션과 함께하는 ‘스타일은 영원하다’에서는 부산의 개성넘치는 인디 뮤지션들의 열정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10대~30대 연령대의 젊은 관객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로, 부산 출신의 4인조 록밴드 ‘세이수미’와 백충원, 김선훈으로 이루어진 듀오 ‘우주왕복선싸이드미러’, 김일두가 출연한다.

보컬 최수미, 기타리스트 김병규, 베이스리스트 하재영, 드럼주자 김창원 등 4명으로 구성된 세이수미는 2집 음반과 수록곡 ‘Old Town’으로 제16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반 등 총 다섯 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가 장기하와 얼굴들, 혁오, 자우림 등 국내 정상급 뮤지션과 경쟁을 펼쳐 ‘최우수 모던록 음반’과 ‘최우수 모던록 노래’ 부문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2014년 결성된 후 2016년 7월, 싱글 ‘빌린뽀뽀’로 데뷔해 부산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주왕복선싸이드미러(이하 우싸미)’는 지난해 698팀이 참여했던 EBS ‘헬로루키’에서 지역 뮤지션으로서는 처음 대상을 차지하며 화제가 됐다.

특유의 저음과 김현식을 연상케 하는 필링으로 유명한 가수 김일두는 동명의 EP 타이틀곡 ‘문제없어요’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2013년 1집 ‘곱고 맑은 영혼’에 이어 2015년 두 번째 정규 앨범 ‘달과 별의 영혼’을 발표한 바 있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지휘 최수열



배우 김석훈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0회 정기연주회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VIII
등정

‘관현악법의 천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을 소개해오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여덟 번째 무대가
4월 1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예술감독 최수열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어려서부터 산을 사랑했던 슈트라우스가 알프스산을 오르며 여정과 그 과정에서 바라본 풍경, 정상에 오르는 순간의 환희와 기쁨을 그려낸 그의 마지막 교향곡인 ‘알프스 교향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 음악에 조예가 깊은 배우 김석훈이 스토리텔러로 출연, 연주에 앞서 최수열 예술감독과 함께 ‘알프스 교향곡’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한다.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알프스 교향곡’은 몇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교향곡 형식이 아닌 22개의 음악 부분이 연속으로 연주되는 독특한 구성을 지닌 작품이다. 어린 시절 슈트라우스는 무르나우를 출발하여 근처 산을 오른 경험이 있는데, 이 때 길을 잃고 산에서 헤매다 폭풍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때의 경험을 음악으로 남기고 싶어했던 슈트라우스는 그가 창작활동을 했던, 알프스 경관이 바로 바라다보이던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에 자리한 산장에서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한다. ‘알프스 교향곡’은 대규모 오케스트라 편성으로도 유명한데,

윈드머신이나 카우벨, 첼레스타, 오르간, 글로켄슈필 등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면서 후기낭만파 음악의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여기에 바리톤 오보에의 일종인 헤켈폰을 사용한 것도 이 작품의 특징인데, 그의 오페라 ‘살로메’에서 처음 사용된 이 악기는 ‘알프스 교향곡’ 이후 현대 관현악곡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악보 곳곳에는 ‘밤’, ‘일출’ 등과 같이 그 과정이 짧게 적혀 있는데, “다만 음만으로 진실을 표현하고, 말로는 다만 암시할 뿐”이라고 말한 작곡가

의 교향시에 대한 생각이 잘 표현되어 있다. 1915년 10월 28일 초연된 후 일부에서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사실적인 표현으로 ‘시네마 음악’이라고 칭해지기도 했다. 이번 무대를 통해 부산관객과 만나는 배우 김석훈은 국립극단에서 활동하다 지난 1998년 SBS 드라마 ‘홍길동’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후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수많은 드라마, 영화, 연극 작품에 출연해왔다. 특히 클래식 음악프로그램 DJ로 활동하며 클래식 정기공연에서 내레이션을 맡는가 하면 직접 컴필레이션 앨범 제작에 나서는 등 ‘클래식 전도사’로도 두터운 팬층을 쌓고 있다.

일시 4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지난 2017년 (재)부산문화회관과의 통합기념으로 시작된 '시민뜨락축제'는 부산시민회관이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시민들과의 소통의 장으로, 클래식에서부터 국악, 무용,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시민들과 만났다. 2019년 올해는 소프라노 김소율과 남성중창단 해피양상블, 부산시립합창단, 여성듀엣 Sun&Moon Project, 부산시립무용단, 전자현악팀 리즈, 코미디언 나일

준, 부산직장인밴드 애플파이, 부산월드뮤직페스타 출연자인 칼라시마(이탈리아), 로르노아(카메룬),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등이 참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시민뜨락축제 첫 날인 4월 19일에는 제15회 오사카 국제콩쿠르 Espoir prize, 제10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음악저널상을 수상한 소프라노 김소율과 음악을 통해 관객과 즐거움을 나눴은 남성중창단 '해피양상블'이 유쾌하면서도 파워풀한 프로그램으로 점심시간 이 곳을 찾은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한껏 날려 줄 예정이다. 4월 26일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부산시립합창단과 실력과 여성보컬 임혜선과 문수경으로 구성된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9 시민뜨락축제

—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가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하는
대표적인 야외무대축제 '2019 시민뜨락축제'가
4월 19일부터 매주 금요일 낮 12시 20분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에서 6차례 펼쳐진다.

'Sun&Moon Project'가 우리 귀에 익숙한 선곡으로 관객과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부산시립무용단의 화려한 춤사위를 관람할 수 있는 5월 3일 무대에 이어 10일에는 전자바이올린과 첼로, 보컬로 구성된 전자현악팀 '리즈'의 색다른 전자음악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날은 홍대 버스킹으로 유명한 신기한 저글링 쇼가 함께 펼쳐진다.

5월 17일에는 지난해 부산직장인밴드경연대회 최우수팀인 애플파이와 부산월드뮤직페스타에 출연하는 카메룬 출신의 가수이자 댄서인 '로르노아'와 이탈리아의 가장 인기있는 밴드 중 하나인 '칼라시마'가 출연해 월드뮤직의 매력을 선사한다. 시민뜨락축제 마지막 날인 5월 24일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가 들려주는 금관악기 특유의 화려한 무대로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2019 시민뜨락축제의 모든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축제가 열리는 야외광장에서는 프리마켓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2019 시민뜨락축제

일시 4월 19일(금)-5월 24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12:20 **장소**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입장료 무료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프리뷰



그동안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마티네 콘서트는 올해 더욱 업그레이드된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오페라 이야기'라는 부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색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깊이 있는 해설로 오페라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 올해 첫 무대에서는 오스트리아 한 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역임하고 현재 예술의전당 전속 어린이예술단 총감독 및 기악지휘자로 있는 정병휘가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 TBN교통방송 아나운서 손지현의 해설, 그리고 소프라노 강혜정, 구민영, 테너 이승우, 바리톤 박순기가 출연해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마술피리'의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를 졸업한 정병휘는 마리스 안손스, 쿠르트 마주어, 네메 예르비, 요르마 파눌라, 다니엘 하딩, 크리스티안 예르비, 마르쿠스 슈텐츠, 티에리 피셔 지휘 마스터 클래스에 초청받았으며, 디미트리 미트로폴로스, 로브로 폰 마타치치 콩쿠르, 말코 콩쿠르 등 세계 유수 콩쿠르에 참여해 그 역량을 인정받았다. 협연자로 관객과 만나는 소프라노 강혜정은 연세대학교 성악과와 미국 뉴욕 매네스음대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즌 5**

오페라 이야기 I

—
**(재)부산문화회관의 특별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인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2019년 첫 무대가 4월 2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하고 2005년 오페라 '마술피리' 파미나 역으로 뉴욕에서 데뷔한 후 그동안 오페라 주역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강혜정은 제3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신인상, 2014년 서울 석세스 어워드 문화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계명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양대학교와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Accademia A.I.D.M, Accademia di Roma를 졸업한 구민영은 국제콩쿨 Premio Enrico segattini 특별상, Musica Sacra 종교성악콩쿠르 로마지역청 특별상을 수상하고 다수 콩쿨에서 입상한 바 있다. 구민영은 현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추계예술대학교 외래교수로 재직하며 국내외의 주요 오페라에 출연하는 등 전문연주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신대학교 음악과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를 졸업한 테너 이승우는 2008년 귀국 전까지 독일 노드하우젠 시립극장, 본 시립 오페라극장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고신대학교 음악과와 교회음악대학원에서 외래교수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호주 시드니 콘서바토리움 음대를 졸업하고 호주 주요 오페라단에서 활동하다 2017년 귀국한 베이스바리톤 박순기는 현재 전문연주자로 활동하며 부산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다.

마티네 콘서트

일시 4월 24일 수요일 오전 11: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4월의 노래, 아리아리랑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홍희철이 지휘하고 TBN 교통방송 아나운서 손지현의 사회, 고토연주자 카타오카 리사, 생황연주자 진윤경, 소프라노 김시하, 소리꾼 박성희의 협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창작 국악관현악에서부터 고토협주곡, 생황협주곡, 창작가곡, 판소리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특히 국악과 양악의 성악을 대표하는 소리꾼과 성악가가 출연, 국악관현악과 어우러지는 경쾌한 노래로 봄의 흥취를 전한다.

지휘자 홍희철은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과정(관현악지휘), 이태리 밀라노 G. Donizetti 시립음악원 오케스트라 지휘과정을 졸업하고 부산국악오케스트라(BKO) 지휘자, 효원국악관현악단 지휘자,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를 역임했다.

첫 곡은 비르와(M. Birvaa) 작곡, 박한규 편곡의 국악관현악 '말발굽소리'. 몽골음악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독특하고 다양한 리듬으로 구성된 곡으로, 전체적으로 활기찬 분위기의 기개넘치는 곡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고토연주자 카타오카 리사가 들려주는 고토협주곡 '바람의 노래로, 드넓은 초원에 부는 바람의 소리를 몽골의 전통민요 선율로 표현한 곡이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고토연주자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4월의 노래, 아리아리랑

무르익는 봄기운을 국악의 신명으로 노래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4월의 노래, 아리아리랑'이 4월 2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자 오사카음대 특임교수인 카타오카 리사는 다수 일본 전통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일본 문화청 예술제 음악부문 최연소 신인상, 제21회 이데미츠 음악상, 오사카 문화제상을 수상했다.

소프라노 김시하가 들려주는 소프라노와 국악관현악 '아리아리랑'은 전통민요 '아리랑'을 콜로라투라 양식에 맞춰 편곡한 가곡으로, 지난 1995년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가 신작앨범 타이틀곡으로 수록해 유명해진 곡이다. 국립창원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김시하는 Leopold Mugnone 국제콩쿠르 1등, 도니젯티 특별상, Giulietta Simionato 국제콩쿠르 2등, Archimede 국제콩쿠르 2등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오페라 주역 및 다수 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만나왔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부수석 및 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생황연주자 진윤경은 부드럽고 맑은 생황 선율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을 그려낸 '바람의 섬'을 들려준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가 들려주는 판소리 '수궁가' 중 '가자가자 어서가자'에 이어 독특한 가락의 흥취가 있는 진도아리랑에 진도의 정서, 혼과 얼을 서곡의 형태를 통해 풀은 '진도환상곡'으로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일시 4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문화가 있는 날 5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프리뷰



예술 장르의 경계를 뛰어넘는 작업으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GOM'은 지난 2009년,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결성된 이후 관객을 무장 해제 시키는 단체 특유의 앙상블 작업으로 큰 호응을 얻어왔으며, 숙련된 아크로바틱 기술과 인간관계에 집중한 진정성 있는 작품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이전작인 'A Simple Space'를 통해서 24개국 500회 이상의 공연으로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GOM'의 예술감독인 Darcy Grant는 훈련받은 곡예사이자 다수의 수상 경험을 가진 사진작가, 신체극 연출가로 2017년 '동물의 사육제'로 의정부음극축제를 찾았던 Circa의 창립멤버이기도 하다. 현재 세계 무대에서 넘치는 도전정신으로 장르를 넘나들며 새로운 형식의 서커스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인물 중 한명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BACKBONE'은 '무대에서 보기 힘든 절제와 동지애를 표현하는 광란의 연기, 그 연기를 무르익게 하는 몸과 캐릭터의 순수한 힘. 한마디로, 관람하면 무조건 만족할만한 작품(Limelight Magazine)', '너무나 강렬히 아름다워서 당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할 작품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호주에서 온 세계 최고의 서커스 'BACKBONE'

—
 '태양보다 강렬한 서커스'로 호평받는
 호주 최고 권위의 현대서커스단
 'Gravity & Other Myths(이하 GOM)'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을 찾는다.

(InDaily)',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내는 반전으로 가득 차 있다(The Advertiser)' 등 평단의 호평과 더불어 2018 Outstanding achievement australian dance awards를 수상하고 2017 Heplmann awards 3개 부문(최고의 신작, 최고의 조명상, 최고의 안무상)에 노미네이트되었으며, 2018년 세계 최고 공연예술마켓인 캐나다 시나르의 공식작으로 초청되어 작품성을 인정기도 했다.

'BACKBONE'은 제목이 말해주듯 인간의 힘과 한계를 시험하는 예술서커스로, 시작이면서도 스펙터클하고 유머러스한 시나리오 안에서 퍼포머들은 나무막대, 흙, 양동이 등 최소한의 소품을 이용하여 서로간의 신뢰와 완벽한 집중력만을 바탕으로 힘과 인내력의 한계를 끊임없이 테스트한다. 화려한 무대 장치는 없지만 끊임없이 탄성이 터져 나오게 만드는 퍼포머들 탁월한 팀워크와 안무는 중력에 저항하는 인간의 도약과 결속을 보여주며 한시도 관객의 눈을 땔 수 없게 만든다. 여기에 무대 위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라이브 음악과 퍼포머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역동적인 조명 디자인의 결합으로 강렬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서커스를 탄생시켰다.

BACKBONE

일시 5월 1일 수요일 오후 2:30, 2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입장료 VIP석 8만원,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만5세 이상 입장,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Mother Dear



과천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재)국립오페라단 부지휘자를 역임한 지휘자 최영선이 이끄는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테너이자 록 기타리스트인 페데리코 파치오티가 함께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가정의 달 5월에 어울리는 'Mother Dear'라는 테마로,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특별하고 애뜻한 마음과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게 보내는 찬사를 음악에 담아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특히 지치고 힘든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을 위해 느리게 한걸음 내디디며 가족의 의미, 약자에 대한 배려, 삶의 의미를 느낌 속에서 되찾아보는 무대로, 순수와 힐링을 모티브로 한 엄마의 품처럼 편안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

이제는 음악을 넘어 한국을 상징하는 여성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조수미는 지난 1986년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의 베르디 극장에서 오페라 '리골렛토'의 '질다' 역으로 국제무대에 데뷔한 후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며 연주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콩쿠르 심사위원, 마스터클래스 등으로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조수미는 그동안 꾸준한 음악활동으로 1993년 이탈리아에서 그 해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수미 콘서트 'Mother Dear'

'신이 주신 최상의 목소리(카라얀),
'한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주빈 메타)'로
전 세계 음악팬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소프라노 조수미가 5월 4일 부산관객과 만난다.

최고의 소프라노에게 수여하는 '황금기러기상(La Siola d'Oro)'을 비롯해 2008년 푸치니 탄생 150주년 기념으로 성악가에게 있어 자랑스런 명예이자 큰 영광인 '푸치니상(The Puccini Award)'을 수상했으며, 그 해 8월에는 제29회 북경올림픽에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안젤라 게오르규와 함께 세계 3대 소프라노로 선정되어 독창회 무대를 가지기도 했다. 조수미의 끝없는 도전은 국제 오페라무대 30주년을 맞은 2016년,

그가 부른 영화 '유스의 주제가 '심플송'이 그해 4월 이탈리아 도나텔로 어워드에서 주제가상을 수상했으며, 그 외 2000년 발매되어 밀리언셀러가 된 크로스오버 앨범 'Only Love', 2015년 발매된 첫 가요앨범인 '그리다'로 음악적 스펙트럼을 계속 넓혀오고 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공식 주제가인 'Here as ONE'을 직접 작곡하여 소프라노 조수미, 가수 소향과 함께 무대에 서기도 했던 페데리코 파치오티는 매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산레모 가요제에서 2001년 신인부문 대상을 차지했던 이탈리아 4인조 팝그룹 '가조사(Gazosa)'의 기타리스트이자 산타체질리아 음악원에서 성악을 전공한 오페라가수로 이색적인 이력을 지닌 유럽에서 주목 받고 있는 뮤지션이다.

일시 5월 4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2019 제36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도전과 실험정신으로 무장한 세계 각국의 우수한 단편영화들을 소개해온 제36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4월 2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간의 축제를 시작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단편영화제인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지난 1980년 8mm 소형영화를 비롯해 대학생 및 일반인들의 독립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편영화들을 소개하던 한국단편영화제에서 출발, 1982년 대한민국단편영화제, 1987년 한국창작단편영화제를 거쳐 1997년 부산단편영화제, 2000년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로 확대 개편해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제작된 다양하면서도 새로운 단편영화들의 경향을 소개해오다 지난 2010년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국제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는 주민국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첫 해인 2012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2013년 중국, 2014년 스페인, 2015년 스웨덴, 2016년 오스트리아, 2017년 캐나다, 2018년 뉴질랜드를 주민국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국의 단편영화와 문화를 소개해오고 있다. 또한 경쟁 부문 외에도 다양한 특별전과 회고전, 해외 초청작을 통해 세계 각국의 단편영화 흐름을 알아보고, 관객들에게 보다 넓은 단편영화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올해로 36회를 맞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응모작 총 131개국 6,072편 중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된 한국경쟁 부문 19편, 국제경쟁 부문 39편 등 총 58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이는 지난해 129국 5,921편 보다 늘어난 숫자로, 해마다 높아져가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국제경쟁부문 출품작 5,795편의 장르별 분포 비율을 보면 극영화가 6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다큐멘터리(15%), 애니메이션(11%) 실험영화(8%)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경쟁 출품작 872편의 장르별 분포 비율 또한 극영화(78%), 실험영화(9%) 애니메이션(7%), 다큐멘터리(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극영화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경쟁부문의 경우 여타 장르의 영화들이 고르게 분포하면서 '장르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내용별로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회 현실을 다룬 작품과 페미니즘, 성소수자와 같은 젠더 관련 작품들이 예년보다 더 성숙한 형태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국제경쟁부문의 경우 다양한 국가 수만큼 많은 주제와 소재가 다뤄졌으며 형식의

혼용을 통한 새로운 시도의 작품이 늘어났고 한국경쟁부문의 경우 판타지, 뮤지컬 등 예년보다 더 확장된 장르적 시도들이 늘어났다.

예심을 통과한 58편의 본선 진출 작품들은 영화제 기간 동안 부문별 최우수작품상, 우수작품상, 심사위원 특별상, 부산시네필 어워드, 연기상, 넷팩상 등 여러 수상 부문에서 경쟁하게 된다. 특히 아카데미 공식 인증을 받은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최우수작품상 수상작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의 단편부문 후보작으로 추천된다. 단편 영화의 스펙트럼을 통해 문화, 예술, 사회 등 한 나라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기회를 제공하는 ‘주빈국 프로그램’의 올해 주인공은 스위스로, 스위스 단편영화의 경향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2017년부터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월드 쇼츠’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세부 프로그램에서는 새로운 주제와 작품들을 통해 세계 단편영화의 다양한 매력을 음미할 수 있으며, ‘패밀리 단편’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이밖에 부산지역의 영화인재 양성을 위해 부산시 중구청과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지원하는 다큐멘터리 사진 제작지원 프로그램으로, 완성된 다큐멘터리 작품을 상영



4월 24일(수)-29일(월)
영화의전당, 산복도로 옥상달빛극장
 (사)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운영위원회
 742-9600, www.bisff.org



하고 시상하는 오퍼레이션 키노, 그리고 영화제를 찾기 힘든 부산지역 시민들에게 단편영화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복도로 옥상달빛 극장, 관객과 프로그래머가 함께 나누는 영화 이야기 ‘관객과의 대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영화제 기간동안 진행된다. 특히 산복도로 옥상달빛극장은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지난 2015년부터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산복도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외극장으로, 부산항의 아름다움과 구도심의 야경을 곁에 두고 영화를 즐길 수 있어 해가 지날수록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2018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최정연 감독의 ‘흥’

KNN 방송교향악단과 함께 하는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가족음악회



◆ ... 음악평론가 박진홍

지난 3월 14일 저녁 부산문화회관에서는 부산, 경남 지역 방송인 KNN이 창단한 KNN방송교향악단과 유쾌한 지휘자 금난새가 즐거운 무대를 선사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정상급 가수인 소프라노 윤정빈, 바리톤 성승욱의 오페라 아리아 연주와 촉망받는 바이올리니스트 위재원의 무대, 그리고 KNN방송교향악단의 생기 넘치고 짜임새 있는 연주가 펼쳐졌다.

KNN방송교향악단은 일제히 무대에 등장하던 기존 연주와는 달리 자유롭고 편안하게 무대 위에 자리잡았다. 첫 곡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부터 앵콜로 연주한 ‘고장난 시계’까지 부드럽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가득했다. 첫 곡 연주에서 목관과 바이올린의 유니슨에서 파트간 균형이 살짝 어긋난 것을 제외하고는 연주 전반에 걸쳐 생기 있는 음색을 만들어 내고 음악의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여 관객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제4번’ 4악장에서는 역동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곡의 흐름을 이끌어 가며 음악에 생명력을 불어 넣으며 마지막을 장식하였다. 특히 각 악기군별 밸런스가 매우 균형있게 조절되었고 섬세하게 조절된 음정이 안정감을 넘어서는 큰 감동을 이끌어 냈다.

지휘자 금난새는 파트와 전체를 오가며 자연스럽고도 노련하게 오케스트라를 다루며 관객들에게 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시켰다. 그는 그때 그때 달라지는 리듬, 선율, 셈여림 등의 음악적 특징에 따라 스토리를 만들어 설명했다. 유머와 유희가 있는 유쾌한 음악 해설에 딱딱했던 객석의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음악에 대한 관객들의 호응도 또한 높아졌다. 금난새는 관객뿐만 아니라 연주자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특유의 재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효과적 연주를 이끌어 냈다. 곡의 해석에 있어서도 다이내믹의 변화

를 더욱 다채롭게 구성하여 입체감이 느껴지는 연주를 선사했다. 이날 연주에서는 세 명의 솔리스트들이 각자의 빛나는 아리아들을 들려주었다. 소프라노 윤정빈은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오페라의 주역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로미오와 줄리엣’ 중 ‘줄리엣의 왈츠’를 노래했는데, 부드러운 음색과 볼륨감 있는 소리, 호소력 짙은 표현력이 어우러져 사랑에 빠진 소녀의 감정이 아름답게 전달되었다. 특히 노래의 템포를 살짝 늦추어 연주함으로써 감정선을 더욱 살렸다. 바리톤 성승욱은 영국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연주자이다. 그는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나는야 이 거리의 해결사’,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를 노래했다. 단단하면서도 풍성하고 생기있는 음색을 가진 성승욱은 수다스럽게 거들먹거리는 피가로의 모습을 유쾌하게 잘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어진 ‘투우사의 노래’에서는 두 곡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음에도 소리의 특징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어 서로 다른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연출하였다. 금호영재로 데뷔하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위재원은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바이젠’을 연주했다.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고 확신에 찬 보잉은 섬세하고 안정감 있는 소리를 만들어 냈다. 유연하고 민첩한 왼손의 움직임으로 작품의 감정을 감동적으로 전해주었다.

객석을 찾은 관객들에게 유쾌하고 다채로운 감동을 주는 무대였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은 객석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좋은 공연은 객석이 채워지는 만큼 더 큰 감동이 있기 마련이다. 입소문 탄 맛집에 손님이 끊이지 않듯이 좋은 공연이 입소문을 타, 객석을 가득 메울 수 있기를 바란다.

부산시립합창단 제174회 정기연주회 R. 슈만 시리즈 II ‘여인의 사랑과 생애’



◆ 부산여성합창단 지휘자 김성복

지난 3월 14일 부산문화회관에서는 ‘여인의 사랑과 생애’라는 주제로 부산시립합창단의 제 174회 정기연주회가 있었다. 지휘는 2016년 9월에 취임한 전진 부지휘자가 맡아서 1부 슈만의 연가곡 ‘여인의 사랑과 생애’를 합창으로 편곡하여 선보였고 2부에서는 ‘현대곡’, ‘재즈 스타일의 민요’ 그리고 ‘봄의 노래’ 무대로 꾸며졌다. 일반적으로 연가곡은 한명의 성악가가 부르는데 이날은 특별하게 합창단 전속 편곡자인 최석태 작곡가가 합창으로 편곡하여 연주되었다. 총 8곡으로 이루어진 슈만의 ‘여인의 사랑과 생애’는 한 처녀가 어떤 남자를 만나 사랑하고, 그 남자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내용이다. 독일어로 연주되었으나 연주 전 손지현 아나운서의 간략한 설명과 더불어 프로그램북 뒷편에 한국어 번역본이 실려 있어서 스토리를 머리 속으로 그리며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제8번곡인 ‘이제 너는 내게 처음으로 고통을 주는구나’를 들던 관객들은 합창 부분이 끝나고 길게 이어지는, 흡사 장송곡같은 후주에서 모두가 숨죽이면서, 마치 장례의 행렬에 동참한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 곡중 솔로의 노래도, 반주도 모두 좋았지만 지나칠 정도로 정적인 무대가 주는 느낌은 일반인이 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았다. 자막이나 연극적인 요소가 조금 가미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잠시의 휴식을 가지고 특별한 두 작곡가의 현대곡 무대가 이어졌다. 첫 곡은 현재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국현 작곡가의 ‘In ecclesiis benedicite Domino, Alleluia!’.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는 작곡가 국현의 수준 높은 무반주 합창곡이 부산시립합창단의 풍성한 음색으로 중극장을 가득 메웠다. 이어지는 곡은, 현재 미국에서 많은 팬을 몰고 다닐만큼 인기가 좋은 합창

지휘자 겸 작곡가 Eric Whitacre의 ‘Little man in a hurry’. 리듬이 어렵고 박자의 변화도 심해서 관객 입장에서는 신나고 재밌는 곡이지만 합창으로 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전주와 함께 시작된 곡을 마지막까지 실새없이 몰아가며 소화해내는 모습에서 부산시립합창단의 역량을 엿볼 수 있었다.

긴장감 가득한 현대합창곡 뒤, 관객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듯한 민요의 무대가 이어졌는데 이소진 작곡가의 편곡으로, 가락은 분명 우리가 아는 것이었지만 그냥 민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민요를 만나 볼 수 있었다. ‘태평가’는 태평한 시대에 춤을 추는 듯한 리듬으로, 지나치지 않을만큼의 재즈 화성으로 연주되었고, 또 다른 한국은 러시아 작곡가 하차투리안의 ‘가면무도회’라는 곡과 섞어 놓은 듯한 ‘신고산타령’이 연주되었다. 피아니스트 출신의 작곡가답게 피아노 반주가 비중이 느껴지는 곡들이었다.

부산시립합창단의 마지막 무대는 최근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작곡가 중 한명인 조혜영 작곡가의 곡과 편곡으로 꾸민, ‘번짐’, ‘목련화’, ‘금잔디’ 그리고 ‘제비처럼’ 등 봄을 노래한 4곡이었다. 합창과 더불어 목련꽃에서는 오보에가, 금잔디에서는 국악기인 태평소와 피리가 가세하여 더욱 풍성한 음악으로 봄의 느낌을 전달해주었고, 더블베이스와 타악기 같이 합세한 제비꽃은 보사노바의 신나는 리듬으로 모든 관객이 한마음으로 프로그램을 마쳤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오는 5월 24일과 25일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는 제목의 가족음악극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라 한다. 음악에 집중된 이번 연주회와는 달리 동적이고 액티브한 합창단의 공연이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부산문화회관

컨템포디보 콘서트
보헤미안 랩소디

일 시 4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부산문화 1600-1803



지난 2015년 10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기념 공연으로 데뷔한 '클래식유랑극단' 소속의 클래식 크로스오버 앙상블 '컨템포디보' 부산콘서트. 컨템포디보는 박익환, 이병일, 소정섭, 구현모, 임성주 등 5명의 젊고 실력 있는 성악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유닛으로, 그동안 KBS 열린음악회, 불후의 명곡, 보컬플레이 등 TV 프로그램에 고정출연했으며 자신들만의 전용극장에서 연 100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4년째 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비트박스 세계 챔피언 마이티가 특별출연, 팸페라와 비트박스 콜라보를 통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컨템포러리 댄싱스타들의
'가을운동회' with CODA

일 시 4월 13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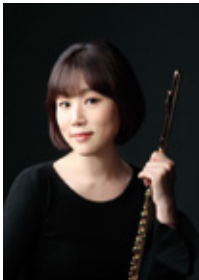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대무용 10개 단체가 주축이 돼 창립한 현대무용협동조합 '콥코다(COOP_CODA)' 부산공연. 기존의 소수층만이 향유하는 문화예술의 범주를 벗어나 '코다이즘(CODISM)'이라는 모토 아래 지난 2017년 6월 창립한 현대무용협동조합 '콥코다(COOP_CODA)'는 그동안 '예술의 대중화, 대중의 예술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현대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창립공연으로 무대에 올린 바 있는 '가을운동회 with CODA'는 어릴 적 청백전의 깃발 속에 친구들과 함께 즐거웠던 가을운동회를 모티브로, 기존의 틀을 깨버린 연출과 공간, 안무로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간다.

김혜미 플루트 독주회

일 시 4월 6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의 김혜미 010-8947-7245



연세대학교 기악과와 미국 신시내티대학교(CCM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루티스트 김혜미 독주회. 김혜미는 Biwako international competition 2위, 음악저널 콩쿠르 대상, 서울대콩쿠르, 서울플루트콩쿠르, NIMF competition 입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현재 인제대학교, 계원예고, 부산예고, 경북예고에 출강하고 있다.

프로그램

J. M. 다마스/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연주회용 소나타
S. Ran/솔로 플루트를 위한 동풍(East wind)
T. 뵘/그랜드 폴로네이즈 작품 16 등

제8회 트라우마 리사이틀

일 시 4월 13일 토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의 트라우마앙상블 010-8593-3045



클래식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진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음악에 대한 꿈(트라우마)을 펼치기 위해 모인 트라우마앙상블의 무대. 트라우마앙상블은 지난 2012년 11월 9일 첫 연주를 시작으로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프로그램

멘델스존/피아노 트리오 제1번 라단조 작품 49
차이콥스키/플로렌스의 추억 라단조 작품 70
● 바이올린/이혜진, 천재경, 서은아
● 비올라/황희경, 김민경
● 첼로/오민성, 우리라, 윤성민
● 콘트라베이스/이유섭 ● 피아노/공숙현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아빠!! 우리같이 놀자~'

일 시 4월 9일(화)-6월 16일(일) 오전 11:00(월요일 공연 없음)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24개월 이상 입장가능,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가사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특별 제작한 창작 뮤지컬 '아빠!! 우리같이 놀자~'.

가정적이고 자상한 아버지 흥부는 아내의 가사일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도 아주 적극적이다. 반면 가사와 육아에는 전혀 관심 없는 놀부. 아이 일곱을 낳아도 남편의 외조로 항상 행복해 보이는 흥부 처와 아이 하나를 낳고도 관절염과 마음고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놀부처. 흥부와 흥부처는 놀부를 변화시키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준비하는데...

● 작/홍선주 ● 연출/변진호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0회 정기연주회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VIII 등장

일 시 4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관현악법의 천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을 소개해오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여덟 번째 무대.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어려서부터 산을 사랑했던 슈트라우스가 알프스산을 오르는 여정과 그 과정에서 바라본 풍경, 정상에 오르는 순간의 환희와 기쁨을 그려낸 '알프스 교향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 음악에 조예가 깊은 배우 김석훈이 스토리텔러로 출연, 연주에 앞서 최수열 상임지휘자와 함께 '알프스 교향곡'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한다.

(사)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제58회 정기연주회 ‘운명’

일 시 4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청소년 50%, 20인 이상 단체 30% 할인)
문 의 (사)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010-3838-4291



‘깊은 울림과 매혹적인 소리를 가진 바이올리니스트’라는 호평을 받는 바이올리니스트 한경진의 협연으로 마련되는 (사)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제58회 정기연주회. 협연자 한경진은 현재 KCO(구 서울바로크합주단), 카이로스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며 경북대학교 교수로 있다.

프로그램

- 베토벤/‘피델리오’ 서곡
- 베토벤/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61
- 베토벤/교향곡 제5번 ‘운명’
- 지휘/홍성택

2019 부산음악축제 II 신인음악회

일 시 4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무료
문 의 (사)부산음악협회 634-1295



부산의 대학 음악과 졸업생 중 각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예비연주자들의 데뷔 무대로 마련되는 2019 부산음악축제 두 번째 무대 ‘신인음악회’. 신인 연주자들의 열정적인 무대로 관객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출연

정유진(플루트, 인제대학교 졸업), 윤은신(소프라노, 경성대학교 졸업), 정찬미(피아노, 신라대학교 졸업예정), 김유경(바이올린, 경성대학교 졸업), 김은영(소프라노, 동의대학교 졸업), 김수현(바이올린, 인제대학교 재학), 공예린(피아노, 경성대학교 졸업), 이준오(베이스, 부산대학교 졸업), 심해수(바이올린, 부산대학교 졸업), 안나희(피아노, 부산대학교 졸업)

2019 부산음악축제 I 피아노 그랜드페스티벌

일 시 4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사)부산음악협회 634-1295



부산의 음악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신인 피아니스트에서부터 원로 피아니스트에 이르기까지 72명의 피아니스트가 함께하는 2019 부산음악축제 첫 번째 무대 ‘피아노그랜드페스티벌’. 아름다운 피아노의 대향연으로 무르익는 봄기운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출연

이경옥, 정년경, 금찬이, 변경선, 배정인, 이문숙, 조상한, 박환희, 최윤희, 이화영선, 김병기, 양정은, 이진성, 안준희, 한상민, 성민주, 신애정, 이윤정, 최은주, 박선재, 박윤정, 이아영, 정경아, 김성숙, 임문건, 임성아, 박정남, 최진현, 조은주, 서소라, 김현정, 유영옥 외

2019 길병민 봄내음 콘서트 한국 가곡 & 오페라 갈라

일 시 4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5만원
문 의 길병민 010-3337-9294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최근 주요 국제콩쿠르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리며 대한민국을 대표할 차세대 베이스 가수로 주목받고 있는 베이스 길병민 콘서트. 2016년 프랑스 퐁루즈 국제성악콩쿠르에서 최연소 베이스 우승자라는 영예를 안으며 해외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길병민은 이듬해인 2017년 모나코 몬테카를로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뉴욕 카루소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비엔나 오토 에델만 국제성악콩쿠르에서 연이어 우승한데 이어 지난해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1회 국제 성악콩쿠르에서 초대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 Special Guest/소프라노 박애랑, 테너 박기훈
- 피아노/성현

전문예술단체 한울림합창단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연주회

일 시 4월 19일 금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전문예술단체 한울림합창단 010-4909-7444



1978년 창단한 후 2005년 부산광역시로부터 전문예술단체 한울림합창단이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의 독립운동가이자 ‘독립을 노래한 항일 음악가’로 작곡 및 가극 활동으로 항일정신을 고취시킨 한형석 선생의 민족의 노래를 통해 3·1운동 정신을 음악으로 승화시킨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김창돈 ● 피아노/전해란

폴 포츠 내한공연

일 시 4월 21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R석 9만원, S석 7만원
문 의 (주)좋은콘서트 1833-4581



‘기적의 목소리’ 폴 포츠가 전하는 위로와 희망 ‘폴 포츠 내한공연’. 지난 2007년 영국의 쇼프로그램 ‘브리튼즈 갓 탤런트’에서 우승하며 세계적인 성악가로 거듭난 폴 포츠는 우승 후 2해 발매된 1집 앨범 ‘One Chance’가 전 세계적으로 500만장 이상 판매하는 밀리언셀러의 성공을 거두었으며 2014년 그의 실화를 담은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폴 포츠는 그동안 복면가왕, 열린음악회, 불후의 명곡 등 다양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누구나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고음처리로 ‘이플렛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지닌 소프라노 성정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문화회관

김미현 피아노 리사이틀
방랑과 전성

일 시 4월 22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국립창원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현재 부산과 창원 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미현 독주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도미, 피바디 음악대학에서 피아노 연주 석사학위를, 오리건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피아노

연주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미현은 그동안 독주회뿐만 아니라 다수의 실내악 무대와 반주 등 다양한 무대에 오르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프로그램

슈베르트/죽음곡 D.899 다단조
슈베르트/판타지 다장조 작품 15 '방랑판타지'
프로코피에프/피아노 소나타 제7번 작품 83 등

제53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아스라이 한겨레가

일 시 4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국가유공자, 장애인, 청소년, 단체 10인이상 50%, 예매시 30% 할인)
문 의 (사)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626-8081, 010-8918-1535



1996년 창단된 법인예술전문교향악단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한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11년 예비 사회적 기업, 2012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무료 공연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 활동을 가져왔으며, 2016년부터 2년간 을숙도문화회관 상주단체로 관객과 만났다.

- 지휘/윤상운
- 첼로/이명진

이윤수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4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
문 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지난해 부산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피아니스트 이윤수의 첫 번째 부산 공연. 서울예고 1학년 재학 중 오스트리아로 유학, 비엔나 국립음대 디플롬 및 전문 연주자 과정,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석사 및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이윤수는 그동안 Brahms,

Ennio-Porrino, Rhodes, Boesendorfer 국제콩쿠르 우승 및 Geneva, Epinal, Sydney, Jose-Roca 등 다수 국제콩쿠르 입상을 통해 그 실력을 입증 받았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올해로 탄생 200주년을 맞는 클라라 슈만을 위한 무대로 클라라 슈만과 브람스, 슈만의 곡으로 꾸며진다.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즌 5
오페라 이야기 I

일 시 4월 24일 수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재)부산문화회관의 특별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인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2019년 첫 무대.

그동안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로 많은 사랑을 받은 마티네 콘서트는 올해 ‘오페라 이야기’라는 부제로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깊이 있는 해설로 오페라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

올해 첫 무대에서는 오스트리아 한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역임하고 현재 예술의전당 전속 어린이예술단 총감독 및 기획지휘자로 있는 정병휘가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 tbn교통방송 아나운서 손지현의 해설, 그리고 소프라노 강혜정, 구민영,

테너 이승우, 베이스 바리톤 박순기가 출연해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마술피리’ 등 모차르트 오페라 아리아로 꾸민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서곡
모차르트/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편지 이중창
모차르트/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빨리 와다오, 기쁨의 순간이여’
모차르트/오페라 ‘돈 조반니’ 중 ‘나에게 그대 손을, 연인이여’
모차르트/오페라 ‘돈 조반니’ 중 ‘나의 보석이여, 창가로 와다오’
모차르트/오페라 ‘돈 조반니’ 중 ‘내 연인을 위하여’
모차르트/오페라 ‘돈 조반니’ 중 ‘나의 아름다운 우상이여, 그런 말씀 마세요’
모차르트/오페라 ‘마술피리’ 중 ‘이 모습 정말 아름다워’
모차르트/오페라 ‘마술피리’ 중 ‘아 나는 알아요’
모차르트/오페라 ‘마술피리’ 중 ‘지옥의 복수심이 내 마음에 끓어오르고’

- 지휘/정병휘
- 협연/소프라노 강혜정, 구민영, 테너 이승우, 베이스 바리톤 박순기
- 해설/손지현

제4회 사랑나눔합창단 정기연주회
아! 대한민국, 희망을 노래하다

일 시 4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사랑나눔합창단 755-5311



음악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랑나눔합창단의 네 번째 정기연주회. 그동안 사랑나눔음악회를 통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해온 사랑나눔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아젠투스 오케스트라, 명호여성합창단, 사랑나눔소년소녀합창단, 소프라노 한경성,

메조소프라노 이선미, 테너 전병호, 베이스 양재원과 함께 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로, ‘아! 대한민국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타이틀로 희망과 화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기원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임재우

제1214회 MBC목요음악회 양산윈드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봄의 향연 샬 오카리나 그리고 하모니카

일 시 4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사)문화도시네트워크 760-1494



매월 수준높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MBC목요음악회 제1214회 무대. 지휘자 박우진이 이끄는 양산윈드오케스트라와 오카리나 연주자 박종근이 이끄는 샬 오카리나양상블, 하모니카 연주자 박기국, 하눌타리 통기타 등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 영화음악, 교향곡 등을 편곡해 오카리나 독주, 중주, 합주와 하모니카, 통기타 협연으로 펼쳐진다.

프로그램

희상, 고독, 좋다, 마녀 여행을 떠나라, 울게하소서(헨델 곡), 수탉 암탉(Lucchini 곡), 이웃집 토도로(조 하사이시 곡), 가브리엘의 오보에(영화 '미션' 중) 등

소프라노 이기쁨 귀국 독창회

일 시 4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이기쁨 010-6647-6676



강릉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후 이탈리아로 유학,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과 리니치오 레피체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귀국 후 전문연주자로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이기쁨 독주회. 이기쁨은 Ruoli Lirici Rome Opera Festival 국제성악콩쿠르 1위, Hyperion 국제콩쿠르 3위 등 다수 국제성악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Ruoli Lirici Rome Opera Festival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후 오페라 '마술피리' 밤의 여왕 역으로 국제무대에 데뷔한 후 다수 오페라에 주역으로 출연, 현지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 피아노/정은정
- 클래식 기타/고정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4월의 노래, 아리아리랑

일 시 4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문화가 있는 날 5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무르익는 봄기운을 국악의 신명으로 노래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4월의 노래, 아리아리랑'.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홍희철이 지휘하고 TBN 교통방송 아나운서 손지현의 사회, 고토연주자 카타오카 리사, 생활

연주자 진윤경, 소프라노 김시하, 소리꾼 박성희의 협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창작 국악관현악에서부터 고토협주곡, 생황협주곡, 창작가곡, 판소리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특히 국악과 양악의 성악을 대표하는 소리꾼과 성악가가 출연, 국악관현악과 어우러지는 경쾌한 노래로 봄의 흥취를 전한다.

한-이 수교 135주년 기념 오페라축제 La Notte Italiana 부산성악가페스티벌

일 시 4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솔로페라단 1544-9373



한국, 이탈리아 수교 135주년을 기념해 솔로페라단이 마련하는 오페라축제. 한국과 부산을 대표하는 성악가들이 출연, 롯시니와 벨리니, 벨칸토 오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도니제티의 다양한 작품들부터 이탈리아 오페라의 낭만을 완성시킨 베르디와 푸치니까지 다양한 이탈리아 명곡을 만날 수 있다.

출연

소프라노 김유섬, 김유진, 박연경, 신정순, 엄남이, 이윤정, 장은영,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테너 김준영, 김지호, 양승엽, 장진규, 조윤환, 허동권, 김종화, 바리톤 박대용, 안세범, 정승화, 조현수, 베이스 권영기, 김일석

- 피아노/박미은, 최유리

ANK 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일 시 4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8천원
문의 ANK 플루트앙상블 010-5406-4779



중세 음악에서 21세기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관객과 소통해온 ANK(Alte bis Neue Kultur) 플루트 앙상블의 무대. 리더 김선영을 중심으로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추어 플루트의 섬세하고 아름다움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모인 ANK 플루트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바로크, 고전음악을 주제로 대중적인 콘서트(concert) 플루트에서부터 굵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알토(Alto) 플루트 등 다양한 종류의 플루트 연주를 통해 플루트만의 매력적인 음색을 들려준다.

노엘합창단 제60회 정기연주회 You are the Music

일 시 4월 27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노엘합창단 010-5796-1115



부산합창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노엘합창단 정기연주회. 지난 1961년 학생합창단으로 창단한 후 1999년부터 성인합창단으로 부산합창의 뿌리와 맥을 이어가고 있는 노엘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는 'You are the Music'이라는 부제로 무반주 성가합창과 추억이 듬뿍 담긴 노래, 그리고 합창이 주는 메시지를 담은 합창곡들로 다양한게 꾸민다.

- 지휘/김강규
- 피아노/윤민화
- 특별연주/유지훈(클라리넷)

소프라노 박소영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 데뷔기념 토크콘서트

일 시 4월 27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위클래식 070-4190-1289



올해 1월 꿈의 무대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에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역으로 데뷔무대를 가진 소프라노 박소영의 토크 콘서트.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수석졸업하고 도미,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박소영은 그동안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보스턴 리릭 오페라, LA 오페라 등 미국 메이저 오페라극장 주역으로 활동하며 명성을 쌓아왔다.

이번 무대에서 소프라노 박소영은 그의 데뷔 폴 스토리와 함께 ‘밤의 여왕’ 아리아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방은현

바리톤 김태우 리사이틀

일 시 4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의 김태우 010-9903-1258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바리톤 김태우 독창회.

영남대학교 성악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포항시립합창단 단원을 역임한 김태우는 그동안 오페라 ‘사랑의 묘약’, ‘돈 파스칼레’, ‘박쥐’, ‘마술피리’ 등 다수 오페라 주역 및 ‘천지창조’, ‘메시아’ 등 오라토리오 독창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슈만의 아름다운 연가곡 ‘시인의 사랑’을 비롯해 정감있는 한국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로 관객들과 만난다.

- 피아노/김주영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9 춤추는 동화
 ‘날 잡아봐라’ 토끼와 거북이**

일 시 3월 26일(화)-4월 5일(금) 오전 11:00(토-일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입장료 전석 1천원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3121-2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부산시립무용단의 눈높이 프로그램 ‘2019 춤추는 동화’.

극적인 이야기 구성과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춤사위로 풀어내는 ‘춤추는 동화’는 매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구성과 안무로 공연 때마다 매진 사례를 남고 있다.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를 재미있는 춤극으로 풀어낸 ‘날 잡아봐라 토끼와 거북이’는 ‘용궁에서’, ‘토끼를 찾아서~’, ‘날 잡아봐라~’, ‘경주하기’, ‘용왕과 거북이의 만남’ 등 총 5가지 에피소드로 구성, 관객인 어린이들이 함께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 대본, 구성/서정숙(훈민지도자)

**솔로페라단의 가족오페라 기획시리즈 III
 모차르트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일 시 5월 2일-3일 화-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문의 솔로페라단 1544-9373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솔로페라단이 마련하는 가족오페라 시리즈 세 번째 무대 ‘마술피리’.

모차르트 3대 오페라 중 하나로, 지난 1791년 초연 이후 228년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독일 오페라 최고의 걸작 오페라이다.

- 단장, 예술총감독/이소영
- 지휘/박지운 ● 연출/노이름
- 예술감독/Dino De Palma, 김영미
- 음악감독/조현수, 최유리
- 출연/Juan Francisco Gatell, 임성규, 박현정, 김신혜, 최은석, 윤오건, 설은경, 이지은, Maria Martorana, 구민영, 박상진, 한우인, 김시하, 이유빈, 손혜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수미 콘서트 ‘Mother Dear’**

일 시 5월 4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VIP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전 세계 음악팬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소프라노 조수미 콘서트 ‘Mother Dear’.

과천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재)국립오페라단 부지휘자를 역임한 지휘자 최영선이 이끄는 프라임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테너이자 록 기타

리스트인 페데리코 파치오티가 함께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가정의 달 5월에 어울리는 ‘Mother Dear’라는 테마로,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특별하고 애절한 마음과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게 보내는 찬사를 음악에 담아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마에스트로 금난새와 함께하는
 ‘스타일은 영원하다’**

일 시 4월 5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노만 파킨슨 전시관람료 포함)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20세기 영국의 전설적인 사진작가 노만 파킨슨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스타일은 영원하다’ 노만 파킨슨전을 기념하기 위해 마에스트로 금난새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한국의 또 다른 스타일리스트 금난새가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금난새가 음악감독으로 있는 뉴월드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

를, 그리고 모음곡 ‘홀베르그의 시대에서’ 작품 40을 비롯해 치마로사 ‘오보에 협주곡’,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여름’ (협연/옥자인), 레스피기 ‘류트를 위한 옛 무곡과 아리아’ 중 ‘파사칼리아’ 등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친절한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부산시립극단 제64회 정기공연 물의 정거장

일 시 4월 8일(월)-13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극단 607-3125



일본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오타 쇼고의 '물의 정거장'으로 선보이는 부산시립극단 2019년 첫 정기공연.
 일본 극단 卍 ami 대표인 김세일의 객원연출로 무대에 오르는 '물의 정거장'은 '침묵극'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낸 일본의 거장 오타 쇼고의 '정거장' 시리즈 첫 번째 작품으로,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서 공연되어 각광을 받았다. 폐허의 수돗가를 스쳐 지나가는 여러 인간 군상과 인생의 여정을 대사없이 침묵만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지난 1988년 서울과 부산에서 공연되어 당시 연극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CBS 윈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3·1운동 100주년 '하나되는 대한민국'

일 시 4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부산CBS 636-0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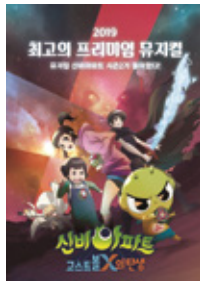


올해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마련하는 CBS 윈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특별한 무대 '하나되는 대한민국'. '문화유목민' 정두환의 지휘와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JTBC 음악경연 프로그램인 '팬텀싱어'의 출연자 조휘, 김지원, 박상규, 우정훈으로 구성된 팬텀싱어가 특별출연, 독일 운동가이자 항일 음악가인 한형석의 광복군가, 여명의 노래를 비롯해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 등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위한 특별한 음악선물을 선사한다.

- 해설지휘/정두환
- 특별출연/팬텀싱어(조휘, 안현준, 김지원, 엄정제)

뮤지컬 '신비아파트' 시즌2 고스트볼X의 탄생

일 시 4월 13-14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대극장
입장료 VIP석 6만원, S석 5만원
문 의 동그라미그리기 1577-4868



투니버스가 제작, 방영해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동명의 호러 애니메이션을 뮤지컬로 제작한 '신비아파트 크-고스트볼X의 탄생'. 고요하고 평화롭던 신비아파트에 강력한 힘을 지닌 흑마법사가 나타난다. 이에 맞서는 신비와 하리 일행은 과연 이들을 무찌르고 어둠속에 갇힌 신비아파트를 구할 수 있을까... 유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에 따라 하기 쉬운 음악과 춤으로 그려낸 '고스트볼X의 탄생'은 애니메이션을 접목한 영상 효과와 홀로그램 등을 활용한 화려한 무대효과로 생생한 현장감을 제공한다.

- 연출, 작가/김중해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9 시민뜨락축제

일 시 4월 19일(금)-5월 24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12:20 야외광장
입장료 무료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2-5200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가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하는 대표적인 야외무대 축제 '2019 시민뜨락축제'.

일정
4월 19일(금) 소프라노 김소율, 남성중창단 '해피 앙상블'

- 4월 26일(금)** 부산시립합창단, Sun&Moon Project(임혜선, 문수경)
- 5월 3일(금)** 부산시립무용단
- 5월 10일(금)** 전자현악팀 '리즈', 코미디언인 나일준
- 5월 17일(금)** 부산직장인밴드 애플파이, 로르노아(카메룬), 칼라시마(이탈리아)
- 5월 24일(금)**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부산 인디뮤지션과 함께하는 '스타일은 영원하다'

일 시 4월 14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노만 파킨슨展 전시관람료 포함)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20세기 영국의 전설적인 사진작가 노만 파킨슨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스타일은 영원하다' 노만 파킨슨展을 기념하기 위해 부산 인디뮤지션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10대~30대 연령대의 젊은 관객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로, 부산 출신의 4인조 록밴드 '세이수미'와 백충원, 김선훈으로 이루어진 듀오 '우주왕복선싸이드미러', 특유의 저음으로 유명한 가수 김일두가 출연, 개성넘치는 인디뮤지션들의 열정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호주에서 온 세계 최고의 서커스 BACKBONE

일 시 5월 1일 수요일 오후 2:30, 2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VIP석 8만원,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만5세 이상 입장,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태양보다 강렬한 서커스'로 호평받은 호주 최고 권위의 현대서커스단 'Gravity & Other Myths'가 선사하는 'BACKBONE'. 'BACKBONE'은 제목이 말해주듯 인간의 힘과 한계를 시험하는 예술서커스로, 시적이면서도 스펙터클하고 유머러스한 시나리오 안에서 퍼포머들은 나무막대, 흙, 양동이 등 최소한의 소품을 이용하여 서로간의 신뢰와 완벽한 집중력만을 바탕으로 힘과 인내력의 한계를 끊임없이 테스트한다.

기타공연장

음악 | Music

2019 라이징 스타 데뷔 콘서트 with 부산솔로이스츠

일 시 4월 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솔로이스츠 010-8524-0069



젊고 실력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부산이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연주단체로 거듭나고 있는 부산솔로이스츠가 영 아티스트들과 함께 마련하는 2019 라이징 스타 데뷔 콘서트.

부산솔로이스츠는 2015년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소규모 실내악에서부터 오케스트라까지 다양한 앙상블 연주로 관객들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어갈 8명의 연주자들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 지휘/박성환
바이올린/강태경, 김하늘, 왕현지, 남서현, 손미령
피아노/이민, 윤지예
첼로/황지유

소프라노 최유진 독창회

일 시 4월 4일 목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우리가곡연주협회 010-3626-9347



행복나눔예술단 단장이자 양산노인대학 학장, 부산아모르함창단 단원, 부산우리가곡연주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최유진 독창회.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설 음악원을 수료한 최유진은 그동안 100회가 넘는 다양한 무대와 민간 오페라 '춘향전', '춘희' 등 다수 오페라 주역으로 무대에 섰으며, 제8회 도전한 국민 문화예술지도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 피아노/양진경
소프라노/유영자, 박정희
테너/정경일
트럼펫/함중윤
베이스/김태형
기타/오부원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3일(679회) 주아유 리드 앙상블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 관악단 악장으로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정준화와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 관악단 단원인 색소폰리스트 고헤호, 오보이스트 홍윤정, 바수니스트 변지윤, 퍼쿠니스트 서동욱, 뉴프라이모오케스트라 단원, 부산클라리넷콰이어 단원인 베이스 클라리네티스트 김정민으로 구성된 주아유 리드 앙상블의 무대.

10일(680회) 구민영&서혜리 듀오 콘서트
부산예교 동문인 소프라노 구민영, 피아니스트 서혜리의 듀오 무대.

스페이스움 음악회

일 시 4월 4일(목) 오전 11:00, 5일(금), 12일(금), 19일(금), 26일(금) 오후 8:00 스페이스움
입장료 전석 2만원(케이터링 포함)
문의 스페이스움 557-3369, www.spaceum.kr



4일(목) 오전 11:00 조창현의 브런치 콘서트
베이스 조창현과 앙상블 오엘이 '청춘, 첫사랑, 설렘'을 테마로 마련하는 무대.

- 베이스/조창현
피아노/박소미
앙상블 오엘/리더 한은희, 방가연, 박서영

5일(금) 오후 8:00 8주년 기념음악회_Concert '벗'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으로 있는 하프리스트 김영림, 신라대학교 교수이자 Ars 현악사중주단 리더인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 부산솔리스트필하모니 객원수석, 트리오 하나리, Ars 현악사중주단 멤버인 첼리스트 하경희가 마련하는 스페이스움 8주년 기념음악회.

한양대학교 성악과와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S. Cecilia)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구민영은 현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추계예술대학교 외래교수로,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 및 동대학원, 미국 신시내티대학교 최고연주자과정(AD) 및 박사과정(DMA)을 졸업한 서혜리는 현재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조교수로 있다.

스페셜 게스트/클라리네티스트 최우선



17일(681회) 더 솔로이스츠 제7회 정기연주회 '해설이 있는 음악'
국내외 유수의 교향악단에서 실력을 쌓은 수석급 솔로 연주자들로 구성된 더 솔로이스츠 정기연주회.

단원들 각각의 독특한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앙상블로서 하나의 완벽한 하모니를 보여주고 있는 더 솔로이스츠는 그동안 바로크 음악에서부터 낭만과 현대작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왔다.

24일(682회) 제5회 신시아 피아노 트리오 정기연주회 'A Journey to America'
미국 신시내티 음악대학 동문인 피아니스트 김은정, 바이올리니스트 손은혜, 첼리스트 김지혜로 구성된 신시아 피아노 트리오 정기연주회.

12일(금) 오후 8:00 재즈밴드 벨코(BELKO)
재즈 피아니스트 민주진, 색소폰리스트 최창근, 베이시스트 황대웅, 퍼쿠션리스트 Nico Manssens으로 구성된 재즈밴드 벨코의 무대.



19일(금) 오후 8:00 남영희의 이야기 클래식 II '혁명과 음악'
콘서트 연출가인 남영희의 이야기 클래식 시리즈 두 번째 무대.

'혁명과 음악'이라는 주제로 역사의 흐름과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 혁명은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졌는지 클래식 음악이라는 창을 통해 살펴보는 색다른 토크콘서트이다.

콘트라베이스/임미형(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26일(금) 오후 8:00 정두환의 음악친구들 I 'Fall in Love with the Music'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 유목민' 정두환과 특색있는 구성의 솔로 및 실내악 앙상블을 통해 클래식 색소폰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색소폰리스트 서영교, 부산반주연구회, 울산피아노 아카데미 멤버로 활약하며 음악세계를 넓히고 있는 피아니스트 류혜진이 함께하는 무대.

창단 25주년 제51회 독우회 정기연주회 아름다운 동행

일 시 4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문의 독우회 010-7495-0647



지난 1994년 독일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후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대학에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는 전문음악인들로 결성된 독우회의 51번째 정기연주회.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테마가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만나 온 독우회는 올해로 창단 25주년을 맞아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관객들과 함께 창단 25주년을 축하한다.

제13회 아르고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연주회

일 시 4월 10일 수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예술기획 0505-700-9798



클래식에서부터 경음악까지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연주로 관객에게 다가가고 있는 아르고 윈드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환상곡을 비롯해 영화 OST 등 우리 귀에 친숙한 명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 지휘/박성완, 이상용
- 소리/오혜원(국립남도국악원 성악단 단원)

더 블로섬 열한번째 이야기 Our Best Days

일 시 4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더 블로섬 010-8272-5306



피아니스트 심하정, 플루티스트 김윤희, 바이올리니스트 정다희, 안은지, 비올리스트 김가민, 첼리스트 김나래 등 부산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섯 명의 여성 연주자로 구성된 더 블로섬의 11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14년 4월 창단 연주회를 가진 후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금정수요음악회, 해운대문화회관 목요상설음악회, 희망의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만나 온 더 블로섬은 이번 무대에서 카메라타 안티과 서울, 앙상블 에트바스 멤버로 있는 더블베이스스트 장린과 함께 부산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악기편성과 연주곡으로 실내악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 내한공연 CLASSIC meets JAZZ

일 시 4월 14일 일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A석 4만4천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뛰어난 편곡과 곡 해석력, 트리오의 깊이 있는 연주와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감성을 지닌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 부산공연. 타테이시 카즈미(피아노), 사토 시노부(콘트라베이스), 스즈키 마오(드럼)로 구성된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의 지브리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재즈로 편곡 연주한 두 개의 앨범이 일본 아마존 재즈차트 1위에 오르고 일본 내 발매기념 공연이 전석 매진되는 등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티스트이다.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의 지난 2011년부터 7년간 내한공연을 연속 매진시키며 한국인이 사랑하는 재즈 트리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9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푸디토리움의 시네마 브런치 시즌 2

일 시 4월 9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커피 무료 제공)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매월 둘째주 화요일 영화 음악감독 푸디토리움과 함께하는 영화와 영화음악 이야기 '푸디토리움의 시네마 브런치' 두 번째 시즌. 국내 음악계에서 감성음악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 푸디토리움(김정범)이 진행하는 시네마 브런치는 매월 색다른 주제가 어우러진 영화 OST를 개성 있는 아티스트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4월에는 영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속 주인공 폴라와 로제, 그리고 시몽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며 IPB의 연주로 브람스의 음악과 삶에 대해 알아본다.

- 연주/IPB(바이올린 이석중, 방효준, 비올라 김가영, 첼로 양욱진, 변은석)

제49회 이태리음악연구회 정기연주회 이태리 오페라 아리아의 향연 음으로 아리아를 수놓다

일 시 4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이태리음악연구회 010-8742-6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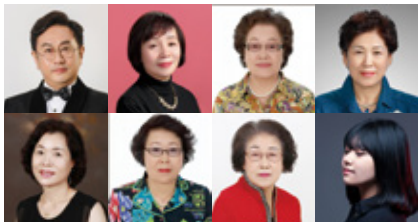


이태리에서 공부한 부산의 성악가, 피아니스트들로 결성된 이태리음악연구회의 49번째 정기연주회. 1985년 부산 최초의 유학파 음악단체로 설립된 이태리음악연구회는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시민들과 함께하는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교과서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이탈리아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하며 관객과 소통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로시니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신데렐라', 벨리니 '몽유병의 여인', 도니체티 '샤모니의 린다', 베르디 '리굴레토' '돈 카를로' 등 이태리 오페라 아리아의 향연이 펼쳐진다.

기타공연장

제2회 오선지 위를 걷는 사람들 아름다운 4월 음악회

일 시 4월 20일 토요일 오후 5: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M&M 성악연구회 010-4434-6605



바리톤 고봉수가 지도하는 가곡교실 회원들과 시니어 합창단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무대로, 평균 연령 70세 성악가들의 노래에 대한 열정적인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출연

소프라노 김일숙, 김경선, 강영숙, 이태자, 이정옥, 안영숙, 메조소프라노 이순옥, 한재희, 테너 김여울, 바리톤 조경남, 장산 청춘합창단, 피아노 강수미, 이남숙, 김현주

제4회 짜장콘서트

일 시 4월 25일 목요일 오후 7:00(6시부터 짜장면 먹기) 음악풍경 연습실
입장료 전석 1만원(카드사용 불가)
문의 음악풍경(051-987-5005)



음악을 통한 사회적 소통과 음악가들의 연주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열리는 하우스 콘서트로, 콘서트가 열리기 한시간 전인 6시 근처 중국집에서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짜장면을 시식하는 이색 이벤트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마련하다.

4월 무대에서는 세계무대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해온 테너 강학운, 엄정행 전국성악콩쿠르 특별상을 수상하고 창원시립예술단 상임단원, 창원문화재단 시민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테너 박천수가 함께 한다.

솔로이스츠 플루트콰이어 시즌 V

일 시 4월 21일 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김인호 010-4554-7777



현재 부산에서 활발한 연주와 강의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솔로이스츠 플루트콰이어의 무대.

매년 4월에 마련하는 정기연주회로, 다양한 종류의 플루트로 구성된 연주자들이 귀에 익은 주옥같은 클래식과 파퓰러한 곡

을 재미나는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프로그램

- J. 슈트라우스/“박쥐” 서곡
- S. 야기사와/카테일 파라다이스
- G. 홀스트/“목성”을 주제로 한 판타지 등 수곡
- 음악감독 겸 지휘자/김인호

제13회 아모로제 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4인 음악회

일 시 4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아모로제 성악연구회 010-3733-2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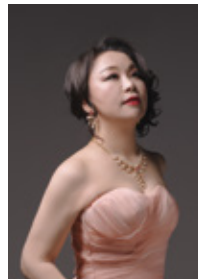
부산을 대표하는 젊고 유능한 성악, 반주자들로 구성되어 부산의 대표적인 성악연구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아모로제 성악연구회의 13번째 정기연주회.

아모로제 성악연구회는 지난 2012년 3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12차례 정기연주회와 우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해외연주회 등을 통해 매회 다양한 레퍼토리와 깊이 있는 연구로 부산음악 발전에 힘써왔다.

이번 무대는 소프라노 권미현, 이지은, 테너 양승엽, 바리톤 시영민 등 4명의 성악가들이 꾸미는 '4인 음악회'로, 아름다운 봄을 노래한 한국가곡에서부터 오페라 아리아까지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소프라노 김미정 독창회

일 시 4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김미정 010-9345-0459



화려한 테크닉과 아름다운 목소리. 풍부한 성량과 깊이있는 음악적 해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중견성악가 김미정 독창회.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G.Verdi' 국립음악원, 'T.Gobbi' 음악원, 'Orfeo', 'G. B. Viotti', 'E. Fogliatti' 아카

데미 등에서 음악수업을 받은 김미정은 이태리 'Erba' 국제성악콩쿠르 1위 및 최고의 목소리를 수상하는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테크닉적으로 매우 어려운 로시니 오페라 '오리 백작' 중 '아델라의 아리아'를 부산 초연으로 들려준다.

연극 | Play

연극 체인징 파트너

일 시 2월 21일(목)-6월 2일(일) 평일 오후 5:00,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공휴일 오후 2:30, 5:00, 7:30(매주 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사랑과 조건을 사이에 두고 맞선을 보는 네 남녀의 뒤죽박죽 로맨스를 그린 연극 '체인징 파트너'.

국내 최대 결혼 정보업체의 스타커플 매니저의 사소한 실수로 맞선 파트너가 바뀌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작품으로, 결혼 적령기에 놓인 두 쌍의 커플이 서로 정반대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을 재미있게 풀어냈다.

**혼자하는 연극 함께 하는 공연
따로 또 같이**

일 시 3월 28일(목)-4월 7일(일), 4월 24일(수)-27일(토)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 의 가온아트홀 1600-1602



그동안 다양한 작품활동을 펼쳐온 극단 창, 극단 사계, 극단 연 등 3개 극단이 함께 하는 '따로 또 같이'.

극단 사계 '그녀가 사는 방식'
3월 28일(목)~4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 없음)

- 작/윌리 러셀
- 연출/김만중 ● 출연/권철, 김수정
- 극단 연 '시라노 드 베르주락'**
4월 24일(수)-27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 작/에드몽 로스탕 ● 연출/오정국
- 출연/배진만, 김수경, 김학준, 차승현, 장민

**뮤지컬 '라이온 킹' 인터내셔널
투어-부산**

일 시 4월 11일(목)-5월 19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2:00, 7:00(4/13일 오후 7:00 1회 공연, 월요일 공연 없음) 드림씨어터
입장료 VIP석 17만원, R석 14만원, S석 11만원, A석 9만원, B석 6만원
문 의 클럽서비스(주) 1577-3363



1,700석 이상의 객석 규모를 갖춘 국내 최대, 지역 최초의 초대형 뮤지컬 전용극장 드림씨어터 개관작 '라이온 킹' 인터내셔널 투어 부산공연.

특히 아프리카 소울로 채워진 음악과 언어, 예술과 과학으로 탄생한 무대와 의상, 야생 밀림을 연상시키는 배우들의 탄력적인 몸이 혼연일체 된 동물 캐릭터의 표현은 '라이온 킹'만의 특별함으로, 브로드웨이 에 가지 않고도 오리지널 무대 스케일과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다.

**극단 새벽 창단 35주년 레퍼토리 기획공연1
연희극 '어느 골짜기에 관한 논쟁'**

일 시 3월 28일(목)-6월 1일(토) 목-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일-수요일 공연없음) 호로민락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1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부산 시민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극단 새벽 245-5919



'삶의 연극화, 역사의 연극화'를 모토로, 시대의 질곡을 함께 해 온 극단 새벽이 창단 35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획공연 '어느 골짜기에 관한 논쟁'.

지난 1998년 창단멤버이자 현재 상임 극작·연출가인 이성민의 연출로 초연된 '어느 골짜기에 관한 논쟁'은 비무장지대(DMZ) 어느 골짜기를 둘러싼 소유권 논쟁을 통해 한국사회의 남북분단 상황을 들여다보는 작품으로, 영지의 땅에 대한 내력과 소유권 다툼을 제기하는 '툭극', 그리고 사자의 진행으로 드러나는 '극중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극 if-그때도 알았더라면

일 시 4월 18일(목)-21일(일) 평일 오후 7: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7:00 성원아트홀
입장료 전석 3만원(3/31일까지 조기예매시 1만3천원)
문 의 성원아트홀 1899-5435



전문공연장 불모지였던 서부산 지역에 복합문화 예술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한 성원아트홀과 극단 415가 선보이는 음악이 있는 따뜻한 가족극 'if-그때도 알았더라면'.

이탈리아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부녀 기혼과 예지. 평소 와인을 좋아하는 기혼은 어느 날 와인축제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게스트하우스에 온 손님들과 와인축제가 가게 되면서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 작/정재환 ● 연출/고은림
- 출연/정재환, 김예민, 박신영, 윤경진, 고민준, 김상우

**년버벌 퍼포먼스
'플라이팬(FLY-PAN)'**

일 시 3월 30일(토)-4월 2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30, 일요일 오후 2:00, 5:30(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문 의 (주)월드쇼마켓 1566-5490



맛있는 창작 년버벌 퍼포먼스 '플라이팬(FLY-PAN)'. 러시아를 배경으로, 비빔밥과 불고기가 담긴 한식당 배달원의 피크닉 가방과 불법 거래 자금이 든 마피아의 피크닉 가방이 바뀌게 되면서 펼쳐지는 코믹하고 유쾌한 '플라이팬'은 팽과리와 장구, 징 등 경쾌한 국악 연주와 짜릿한 락 스피릿, 여기에 다양한 한식재료와 도마, 식칼, 빗자루, 무술 검 등이 만들어 내는 신나는 타악 리듬이 신명을 북돋우며, 절도 있는 태권도와 자유분방한 비보잉, 아크로바틱의 콜라보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가족뮤지컬
백설공주 미미-숲속오두막**

일 시 4월 20일-21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KBS 부산홀
입장료 R석 5만5천원, S석 3만3천원(24개월 이상 관람 가능,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주)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우리나라 최초의 패션인형 프린세스 미미를 주인공으로 한 가족뮤지컬 '백설공주 미미-숲속오두막'.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명작 동화 '백설공주'와는 다른 이야기로 어린이 관객들에게 새로움을 선사하는 이번 무대는 맛있는 사과파이를 굽는 지혜로운 백설공주 미미와 사과왕국 왕자님 준, 귀여운 동물친구가 함께 만들어내는 유쾌 발랄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특히 동화 속 세상을 옮겨놓은 듯한 환상적인 무대와 마치 인형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배우들의 연기가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기타공연장

채환의 논픽션 모노뮤지컬
‘마흔 즈음에’ 김광석을 노래하다

일 시 4월 27일 토요일 오후 4:00, 7:30 KBS부산홀
입장료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주)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故 김광석을 노래하는 해피싱어 채환의 논픽션 모노 뮤지컬 ‘마흔 즈음에-김광석을 노래하다’.

JTBC 예능 프로그램 ‘히든싱어’ 김광석 편에 나와 결승 무대까지 올랐던 가수 채환이 김광석과 만났던 실제 에피소드를 극화한 ‘마흔 즈음에’는 김광석의 노래 15여 곡과 채환의 노래를 라이브로 선보이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뮤지컬이다.

지난 1997년 초연된 후 현재 1,700회 이상 진행된 국내 최장기 공연으로, 김광석을 사랑한 가수 채환의 목소리와 눈물을 자아내는 이야기가 감동의 라이브와 함께 펼쳐진다.

무용 | Dance

2019 박헌주 Busan City Ballet Company
발레공연 백조의 탄생

일 시 4월 12일 금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박헌주 Busan City Ballet Company
999-5301, 010-4552-9605



신라대학교 초빙조교수로 있는 박헌주 예술감독이 이끄는 박헌주 Busan City Ballet Company의 2019년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베버의 ‘무도회의 권유’를 배경음악으로 발레의 아름다운 테크닉을 감상할 수 있는 ‘무도회 왈츠’를 시작으로

댄스스포츠를 통해 남녀간의 사랑을 묘사한 ‘빛속으로’, ‘백조의 호수’ 1막 2장에 힘입을 가미한 새로운 음악으로 탄생시킨 ‘백조의 탄생’ 등 클래식과 창작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총연출 및 안무/박헌주(예술감독)
- 진행 및 사회/김은희(프리랜서)

영화 | Movie

세계영화사의 위대한 유산
월드시네마 XVI

일 시 3월 19일(화)~4월 24일(수)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월요일 상영없음)
입장료 일반 6천원, 경로·청소년 4천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6080



영화사의 빛나는 보석들을 만나는 ‘월드시네마’ 열여섯 번째 상영회.

널리 알려진 영화사의 걸작들을 재조명하는 ‘재발견’, 잘 알려지지 않은 걸작들과 만나는 ‘발견’, 영화 ‘죽구왕’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 안재홍의 추천작을 만나는 ‘카르트 블랑슈:배우 안재홍의 선택’, 카메라 너머의 치열한 영화현장을 들여다보는 ‘포커스:영화만들기의 지옥’ 등 4개의 섹션을 통해 세계 영화사의 위대한 유산을 만날 수 있다.

행사 | Event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따로 또 같이 협주곡 이야기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현재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에서 매주 음악이 사람들 속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고 만나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프로그램

- 4월 2일(695회) 바흐의 협주곡 이야기
- 4월 9일(696회) 하이든의 협주곡 이야기
- 4월 16일(697회) 모차르트의 협주곡 이야기
- 4월 23일(698회) 베토벤의 협주곡 이야기
- 4월 30일(699회) 이달의 책 읽기 ‘어디서 살 것인가’(유현준 저, 을유문화사)

부산예술회관 작은영화콘서트
시민과, 영화로 소통하다 ‘위플래쉬’

일 시 4월 16일 화요일 오후 4: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무료(15세 관람가)
문의 부산예술회관 612-1372, 628-4371



매월 셋째주 화요일,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에 대한 수다로 소통하는 부산 예술회관 작은영화콘서트 ‘시민과, 영화로 소통하다’ 2019년 4월 상영회.

영화 상영 후에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부산영화인협회 서영조 회장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코드들을 소개하며 관객들이 놓친 장면에서 숨어 있던 의미와 이미지들을 짚어준다.

4월에는 최고의 드러머가 되기 위해 명문 음악학교에 입학한 앤드류와 최고의 실력자이자 최악의 폭군인 전설의 괴물 교수 플렛처가 펼치는 광기어린 레슨을 그린 영화 ‘위플래쉬’(2012년 작, 상영시간 106분)를 상영한다.

김옥균의 힐링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수강료 12만원(3개월)
문의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에서 ‘FM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MBC PD 김옥균(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 씨가 진행하는 클래식음악 해설감상회로, 최신 해외연주회 실황을 고품질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 바흐 ‘토카타와 푸가’ 라단조, 슈만 ‘아베고 변주곡’ 알비노니 ‘아다지오’, 홀스트 모음곡 ‘혹성’ 비제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베토벤 교향곡 8번 하차투리안 ‘스파르타쿠스’, 생상사 ‘첼로협주곡’ 푸치니 오페라 ‘서부의 아가씨’ 전막 감상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일 시 4월 9일(화), 22일(월)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9일(화) 오후 7:30 콕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40강 '구스타프 말러 IV' 세기말의 정서를 그려낸 후기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 작곡가로 평가받는 현대음악의 선구자 말러의 삶과 작품세계를 알아보는 말러 시리즈 4번째 강좌로, 42개의 가곡들 중에서도 가장 비중있게 평가되는 '어린이의 이상한 불 피리' 전곡을 소개한다.

22일(월) 오후 7:30 색이 삶을 말하다 제24강 미술의 눈이 된 색채, 화가를 말하다-앙리 마티스 편
 • 강사/박미송(퍼스널컬러전문가)

전시 | Display

고은사진미술관 해외교류전

일 시 3월 8일(금)-5월 8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7:00(월요일 휴관)

최봉준 초대전

일 시 3월 26일(화)-4월 5일(금)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타워아트갤러리 463-3939

2019 꽃그림전 '봄을 노래하다'

일 시 4월 6일(토)-4월 13일(금)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타워아트갤러리 463-3939

무지크바움 클래식음악 특강 장일범과 함께하는 세계 클래식 음악계의 트렌드와 최고의 스타들 & 유럽 최고의 페스티벌

일 시 4월 13일 토요일 오후 3:0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3만원(예약 필수)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 해설자 및 평론가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장일범과 함께하는 무지크바움 특강. 세계 클래식 음악계의 트렌드와 최고의 스타들, 그리고 유럽 최고의 페스티벌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 1부** 세계 클래식 음악계의 트렌드와 최고의 스타들
 - 빈필 신년음악회:슈타츠키펠레 베를린의 중신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
 - 슈퍼스타 소프라노 안나 네트렙코와 바리톤 플라시도 도밍고
 - 세계 최고 인기의 독일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 사이먼 래틀과 베를린필의 Music for Everybody 발트뷔네 콘서트

'한국근현대미술걸작'展

일 시 3월 28일(목)-4월 28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김환기, 이중섭, 박수근, 장욱진, 천경자의 작품을 비롯해 20세기 격변의 시기를 지나온 근현대 미술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근현대 화단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한국 근현대 미술 걸작'전.

- 참여작가/권진규, 김환기, 박수근, 이대원, 이중섭, 장욱진, 천경자, 김창열 외 36명

- 92세의 노장 명 피아니스트 메나헴 프레스러
 - 화제의 중심:Elbphilharmonie Hamburg

- 2부** 유럽 최고의 페스티벌
 - Lucerne Festival (루체른 페스티벌)
 - Arena di Verona Festival (베로나 오페라 축제)
 - Salzburg Festival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 Bregenz Festival (베르겐츠 페스티벌)

제138회 알바트로스 詩낭송회

일 시 4월 20일 토요일 오후 3:00 신세계안과 문화홀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알바트로스시낭송문학협회 010-6367-0149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시마당 제11차 사투리 시 낭송대회

일 시 4월 23일 화요일 오후 6:30 오성병원 대강당
입장료 무료(선물 증정)
문의 회장 안태봉 010-8374-0626

57(웃칠) 박수이 展

일 시 4월 15일(월)-5월 16일(목) 갤러리 아인
문의 갤러리 아인 747-2612



정우범 초대전

일 시 4월 15일(월)-5월 10일(금)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타워아트갤러리 463-3939

북칼럼니스트 박현주



영화의 얼굴

양해남 지음 / 세계집
448p / 3만 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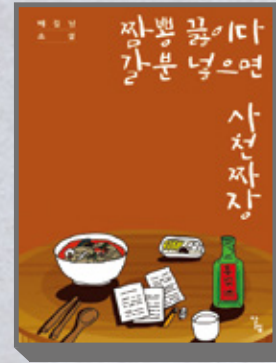
올해는 한국영화 탄생 100주년인 해이다. 지난 100년간 우리 국민들이 울고 웃고 감동했던 영화들은 얼마나 많았을까. 수집가 양해남의 한국 영화 포스터 컬렉션이 책으로 나왔다. 자신이 소유한 2천 400여 점의 한국 영화 포스터 가운데, 1950~198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 248점을 골라 소개한다. 이 시기로 특징지는 것은 해방 이후 본격적인 의미의 ‘한국’ 영화가 제작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1990년대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가 찾아오기 직전까지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40년 동안 한국 영화가 성장기와 황금기, 쇠퇴기를 거치며 한 사이클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40년을 10년 단위로 끊어서 각 시기 영화 포스터들의 안팎을 집요하다 싶을 만큼 살살이 읽어냈다. 종이의 재질과 규격에서부터 포스터를 디자인하고 인쇄한 방식을 볼 수 있다. 손그림이나 스틸 사진을 활용한 인물 묘사, 카피를 통해 주제와 정서를 전달하던 문법, 한 시대의 얼굴이 된 스타들과 소리 없이 사라져간 배우들, 자기만의 영상 언어로 하나의 세계를 펼쳐 보였던 뛰어난 감독들은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포스터 곳곳에 남아 있는 검열의 흔적, TV에 빼앗긴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들까지 찾아냈다.



미루기의 천재들

앤드루 산텔라 지음 / 어크로스
240p / 1만 3천 800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루는 습관’에 대해 안 좋게 본다. 이 책은 미루기가 게으름과는 달리 창의적으로 꾸물거리느라 바쁘다고 말한다. 저자는 자기 계발이라는 미명아래 시작된 끊임없는 자책, 잘하고 있는 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자기 검열의 역사까지 고루 살피면서 우리 시대의 효율성 숭배에 관해 반문한다. 미루기의 심연 속에서 역사에 남을 위대한 성취를 탄생시킨 천재들의 이야기도 소개하면서 미루기가 가진 아이러니한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 문학, 미술, 건축, 과학사에 한 획을 그은 천재들이자 미루기의 달인이었던 거장들의 자취가 흥미롭다. 르네상스를 이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미루기는 당시에도 큰 화제였다.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 등 우리는 르네상스를 이끈 다빈치의 작품을 보며 감탄하기 바쁘지만 당시에 다빈치를 고용하며 그림을 의뢰했던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은 단 하나였다. “과연 다빈치가 약속한 날에 일을 마칠 것인가”였다. 교황 레오 10세는 다빈치를 가리켜 “이 사람은 그 무엇도 끝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고, 다빈치는 임종 직전에 “아무것도 끝내지 못했어”라고 탄식했다. 종의 기원’ 발간을 20년이나 질질 끈 다윈 등 인류사의 천재들은 제 속도를 걸어갔다.



짬뽕 끓이다 갈분 넣으면 사천짜장

배길남 지음 / 알렘 / 332p
1만 4천 500원

부산에서 나고 자란 배길남 소설가의 두 번째 소설집. 배길남은 2011년 부산일보 신춘문예에서 소설 ‘사라지는 것들’이 당선되며 등단했다. 2010년 10월에 부산의 동보서적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고, 문을 닫는 서점을 배경으로 쓴 소설이다. 동보서적에서 약속을 하고, 책을 읽었던 시간들을 아쉬워하면서 쓴 작품이었다. 첫 등단작이 부산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기록한 소설이었다. 등단 후에는 부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 작업도 계속해왔으며, 곧 산문집 <하하하 부산>이 나온다. 부산작가상(2014)과 부산민족예술인상(2012)을 받았다. 부산의 소설문단을 이어가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든든한 젊은 소설가이다. ‘짬뽕 끓이다 갈분 넣으면 사천짜장’은 첫 번째 소설집 ‘자살관리사’를 발표한 후 5년 동안 틈틈이 발표해 온 작품 중에 고른 8편의 작품을 실었다. 담백한 문체와 속도감 있는 전개 그리고 맛깔스러운 사투리가 배길남 소설가 문체의 특징이다. 8편의 소설은 성장소설과 추리소설, 역사소설과 거기에 패러디소설까지 여러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다. 부산 사투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작품을 읽다보면 마치 오래된 친구가 옆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하다.

◆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감독 및 · · · 객원 지휘자·안무자 발표

- 극단 신임 예술감독에 김지용 연출가 선임
- 합창단·국악관현악단·무용단 객원 예술가 3인씩 선정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이용관)은 지난 3월 20일 부산시립예술단의 예술감독 및 객원 지휘자, 안무자를 발표했다.

극단 예술감독으로는 부산 출신의 김지용 연출가가 선임됐으며, 국악관현악단과 무용단의 예술감독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각 3인의 예술인들이 객원으로 정기공연에 참여, 평가를 통해 가장 적합한 1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합창단 선정방식은 논의중이다. 새롭게 선임된 김지용 예술감독과 객원지휘자, 안무자는 추천위원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발굴해낸 최고의 실력자들이다.

7개 예술단은 지난 1월 말 이후 교향악단을 제외한 6개 단체의 예술감독이 공석이였다. 이에 예술단은 청소년교향악단과 소년소녀합창단 등 2개의 비상임 단체를 제외한 4개 단체의 예술감독 선임을 위해 기존의 공개 채용 방식이 아닌 전문가 추천제를 선택했다. 공개채용 방식으로는 우수한 예술감독을 선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부산지역과 전국 인사들로 고르게 구성된 전문가 추천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비공개 회의로 진행해온 것이다. 추천위원들 역시 부산과 전국의 전문가들, 예술단원들의 추천으로 까다롭게 선정됐다.

이번에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객원 예술가들로는 우선 합창단에 김인재 한국합창지휘자협회 이사, 이기선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 명예교수, 루마니아 출신의 지휘자 아드리안 스타나케이다. 김인재 지휘자는 풍부한

위 좌로부터 진성수, 문형희, 홍희철(국악관현악단)

아래 좌로부터 김지용(극단), 이명근(청소년교향악단), 김수현(소년소녀합창단)



위 좌로부터 김인재, 이기선, 아드리안 스타나케(합창단)

아래 좌로부터 김충한, 김수현, 이정윤(무용)

연주경험과 리더십을 겸비한 지휘자로, 이기선 교수는 합창계를 대표하는 마에스트로로 인정받고 있으며, 아드리안 스타나케는 지난해 합창단 객원지휘를 통해 단원들에게 실력과 인품을 확인받았다. 무용단을 함께 할 객원 안무자로는 풍부한 공연경험과 대중과의 소통에 탁월한 정동극장 김충한 예술감독, 한국창작춤의 대가인 배정혜 안무가의 메소드를 탄탄히 보유한 김수현 배정혜춤아카데미 대표, 스타 무용수에서 스타 안무가로 주목받고 있는 40대의 젊은 안무가 이정윤 대만국립예술대학교 교수 등 세 명이 선임됐다. 특히 이정윤 교수는 부산 출신이다. 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후보로는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진성수 악장,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이수자인 국립국악관현악단 문형희 악장, 그리고 현재 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로 있는 홍희철 지휘자로 선임됐다.

선임된 각 단체의 예술인들은 올해 6월부터 각 단체별 정기공연의 객원 지휘자, 안무자로 관객들과 만난다. 각 무대를 통해 전문가 평가 및 단원 의견수렴, 관객들의 반응조사 등을 통해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공연을 보여준 1인의 예술가를 선정,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로 선임할 계획이다. 부산시립예술단 부단장이기도 한 (재)부산문화회관 이용관 대표이사는 “이번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선임된 예술가들은 예술감독으로 모시기에는 모두 부족함이 없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경쟁보다는 좋은 공연을 펼치는데 의의가 있다”며 “부산시립예술단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한편, 이번에 극단의 새로운 예술감독으로 선임된 김지용 연출가는 부산 출신의 40대 젊은 실력파 연출가로, 이미 극단과는 7차례 객원연출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또, 앞서 공개 채용을 통해 소년소녀합창단 신임지휘자로 김수현 지휘자, 청소년교향악단 신임 지휘자로 이명근 지휘자가 선출됐다.

◆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본격 전개

평소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맞춤공연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2019년 공연이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9일까지 부산지역 기업, 복지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 유치 희망기관을 모집한 결과, 122곳의 기관들이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신청, 일상 속 부산시립예술단과의 즐거운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신청 기관 122곳 중 강서구, 기장군 등 공연장을 찾기 힘든 지역과 소외계층을 위한 기관을 필수 방문지로 선정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해 합창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극단, 청소년교향

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전체 7개 단체의 공연일정을 조율해 많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필수 방문지로 선정된 곳은 97곳, 일정 등 검토가 필요한 곳은 13곳으로 분류, 올해 총 110곳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나머지 공연이 힘든 12곳은 중복지원, 공연일정 조정이 힘든 기관들이다. 이밖에 공연희망기관 모집을 통해 선정된 110곳 외에도 부산시를 대표하는 주요 기념식, 행사, 축제 등 더욱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계층에서 공연을 접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공연유치 희망기관을 통해 접수된 기관 외에도 부산시립예술단은 부산도시철도와의 업무협약으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6:30 부산시청역을 비롯해 서면, 연산, 센텀, 사상역 등 5개역에서 문화가 흐르는 도시철도 공연을 진행, 2019년 시민들과 한층 더 가까이 만날 예정이다.



4월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 4월 3일(수) 13:40 보건고등학교_국악관현악단 '교과서 음악회'
- 4월 4일(목) 14:30 계성여자상업고등학교_교향악단
- 4월 11일(목) 10:00 부산광역시청 대강당_소년소녀합창단
- 4월 11일(목) 13:20 부산박물관_합창단
- 4월 12일(금) 10:50 창진초등학교_무용단
- 4월 16일(화) 13:20 동래구 장애인복지관_청소년교향악단
- 4월 17일(수) 19:00 연제도서관_청소년교향악단

- 4월 18일(목) 09:40 교동초등학교_합창단
- 4월 18일(목) 15:00 사하구청_국악관현악단
- 4월 19일(금) 10:00 중앙공원_합창단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
- 4월 19일(금) 10:30 부산동암학교_청소년교향악단
- 4월 24일(수) 14:30 다대중학교_무용단
- 4월 26일(금) 09:20 부산솔빛학교_교향악단
- 4월 26일(금) 11:10 부산성우학교_교향악단
- 4월 26일(금) 12:20 부산시민회관_합창단 '2019 시민뜨락축제'
- 4월 26일(금) 14:00 동래여자고등학교_교향악단
- 4월 26일(금) 19:30 두송생활문화센터_교향악단

◆ (재)부산문화회관·부산교통공사 업무협약 체결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이용관)과 부산교통공사(사장 이종국)는 부산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가 흐르는 품격 도시 부산'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월 2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매월 한차례 부산교통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문화가 흐르는 부산도시철도' 공연에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공연을 함께 진행하며, 부산도시철도에서는 전 역사의 공익게시판에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상호 홍보를 위한 다양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찾아가는 시립예술단은 3월 29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시청역, 서면역, 연산역, 센텀시지역, 사상역 등 부산도시철도 5개역에서 클래식에서부터 합창, 국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로 시민들과 만난다.

◆ (재)부산문화회관 2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개강

3월 18일부터 수강생 모집, 4월 3일 개강



차별화된 수준높은 강좌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 2019년도 2분기 강좌가 4월 3일부터 새롭게 펼쳐진다. 실기강좌에서부터 인문학, 교양강좌에 이르기까지 매 분기마다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온 문화예술아카데미는 올해 2분기 강좌에서도 쉽게 접하기 힘든 프리미엄 강좌에서부터 이색적인 특강까지 다채롭고 수준높은 강좌들이 준비되어 있다.

신규강좌로는 지난해 '오페라 명작속으로'를 통해 수강생들의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았던 작곡가 김상헌의 '클래식무대'가 수강생들과 새롭게 만난다. '클래식의 고향에서 새로운 세계로'라는 부제로 클래식 음악의 고향, 비엔나에서부터 대양을 건너 새로운 땅 뉴욕에 이르기까지 클래식 음악이 뿌리내리는 흐름을 따라간다. 또다른 신규강좌인 'Creative 북바인딩'은 유태파 출신의 북 아티스트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김효은 강사와 함께 새로운 표현 영역으로 자리한 북바인딩 제작을 배워볼 수 있는 강좌로, 나만의 자서전을 테마로 판화기법을 응용한 프렌치도어 북 제작에 도전할 수 있다.

문화예술의 소확행(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을 이루어줄 흥미로운 특강들도 계속 진행된다. 주말인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단기 음악강좌로 특히 직장인,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세계의 뮤지컬 시즌2'가 4월 한달간 4차례 진행된다. 공연칼럼니스트 이상훈이 진행하는 이번 강좌에서는 '레 미제라블', '라이온 킹',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태양의 서커스' 등 최고의 흥행작들을 해외 현지의 귀중한 영상과 사진자료로 만나볼 수 있다. 5월에는 여행하듯 공부하는 미술 강좌로 인기를 모은 '유럽의 미술관'과 낯설게만 느껴지는 현대음악의 감상법을 알아보는 상명대학교 이강규 교수의 '알기 쉬운 현대음악 이야기'가 펼쳐진다. 지난 특강을 통해 바티칸 박물관과 프라도 미술관을 소개했던 강사 김성민은 이번 강좌에서 이탈리아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을 중심으로 르네상스부터 바로크까지 회화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6월 특강에서는 미술작품을 감상하면서 음악이 우리 생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는,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이장직 총괄연구원의 '음악을 보고, 그림을 듣는다'가 두차례 펼쳐진다.

이 밖에 해를 거듭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유희준의 음악이야기,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Artistic Fantastic 미술사, 원더풀 컬러풀 미술사 등 교양강좌와 지휘자 클래스, 성인발레, 라인댄스, 한국무용, 첼로, 바이올린, 클라리넷, 가야금, 사물놀이, 해금, 클래식 기타 등 실기강좌도 계속 운영된다.

2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는 4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수강생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및 전화, 방문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전시교육팀(607-6061~4, www.bscc.or.kr)

2019년 부산시민회관 백스테이지투어 안내

우리가 관람하는 공연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화려한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부산시민회관 극장무대체험 '백스테이지투어'를 신청하세요.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chan@bscc.or.kr)
- 운영일정 || 4월 23일(화), 5월 21일(화) 오전 10:00~오후 12:00
※단, 공연일정에 따라 백스테이지 투어 일정은 조정 될 수 있음
- 투어장소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및 소극장
- 참가비용 || 무료

- 참가인원 || 선착순 30명
(초등학생 체험시 반드시 성인 1인 동반 신청)
※ 투어 프로그램 특성 상 안전을 위해 인원 제한
※ 정원미달시(최소 10인) 일정조정 또는 취소
※ 학교 등 단체참여 희망 시 별도 문의 요망
- 참가대상 || 초등학생 이상 개인 및 단체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40, 5243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부산시립예술단 전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예술에의 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대극장 좌석 네이밍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원

구분	후원 금액	법인/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컨퍼런스 홀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이사 회원	500 이상	법인/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1회 무료 (연간)	2개 좌석
	3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20% 할인	1개 좌석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전시, 아카데미, 컨퍼런스 홀 사용 등은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함. ※ 일부 공연 및 전시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사무처장 운영기(010-7361-7273)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 명단

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부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사무처장

윤영기 (주)선광 대표이사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광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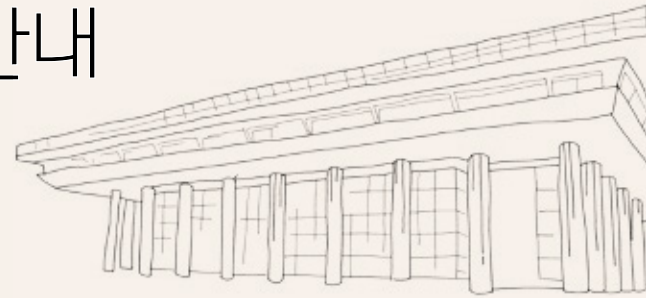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총장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 균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성수 (주)태영유니텍 대표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J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철 해운대 로드비치호텔 회장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박홍근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성승모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명희 리더스금융판매 위드컨설팅 대표
 신상현 신상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철 성모안과병원 병원장
 이경현 엘가 대표
 이성임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에리카정애 SK증권(주) 이사
 이정일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임은자 공연예술 전위 실장
 정민섭 (전)국회의장
 정영희 숙편한내과 원장
 정의화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성락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조종래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조충영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진경옥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하정태 신세계 안과의원 대표원장
 한원우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허 준 현임숙

※ 2019년 3월 기준 가입자 명단(이후 추가 가입회원 다음호 게재)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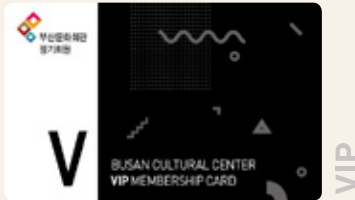


회원가입

-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74~6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재)부산문화회관]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 공연정보(SMS) 제공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2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할인(회원카드 제시 시 50%)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매월 1회 추천, 여행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등



- 연회비** : 10만원
초대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에서 예약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5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 지정된 기획공연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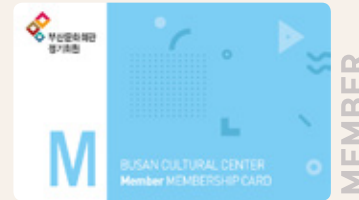


- 연회비** : 5만원
초대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 연회비** : 3만원
초대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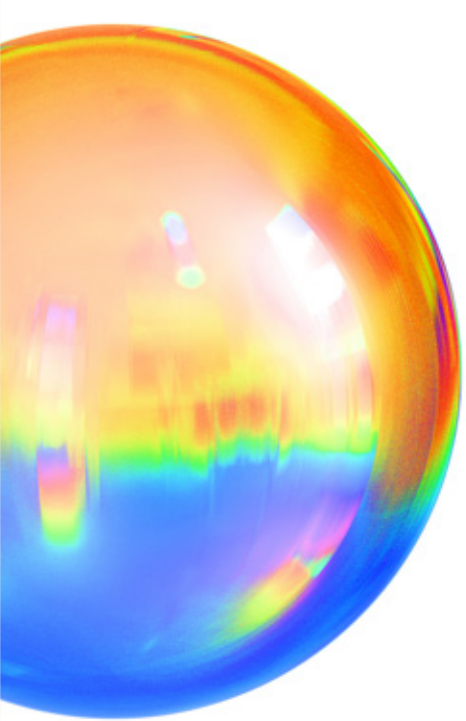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가입단체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공연입장료의 할인이율이 달라질 수 있음.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19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이후 공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19 노자와 베토벤 '고진감래(苦進感來)' **예약중**

3월 30일(토), 6월 22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당 선착순 80매)

철학과 클래식의 만남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노자와 베토벤' 2019년 무대

현대무용협동조합 '가을운동회' **예약중**

4월 13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S석에 한해 1인 2매, 선착순 40매)

대한민국 최고 현대무용가들이 펼치는 컨템포러리 댄싱스타들의 무대

2019 마티네 콘서트 **예약중**

4월 24일(수), 5월 22일(수), 6월 26일(수), 8월 28일(수)
10월 2일(수), 11월 20일(수)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40매)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마티네 콘서트' 2019년 무대

세계적인 아트서커스 BACKBONE [종료]

5월 1일(수) 오후 2:30, 2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R석에 한해 1인 2매, 회당 선착순 30매)

경이로운 곡예와 따뜻한 위트, 환상적인 무대예술의 완벽한 조화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세계적인 아트서커스단 BACKBONE의 무대

유라시아 챔버 뮤직 '실내악의 초대' [종료]

5월 27일(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1인 2매에 한해 선착순 20매)

세계 속의 한국 최정상 음악가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연극 '인형의 집, Part 2' **예약중**

6월 1일(토) 오후 3:00,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1인 2매에 한해 회당 선착순 20매)

2017년 토니 어워드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어 작품성을 인정받은, 집으로 돌아온 '노라'의 이야기

연극 '신의 아그네스' **예약중**

6월 20일(목)-21일(금) 오후 7:30, 22일(토) 오후 3:00, 6:00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1인 2매에 한해 회당 선착순 20매)

앵콜공연으로 관객들을 다시 찾아온 존 필마이어의 작품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홍보마케팅팀(607-6074~6)

VIP

2019년도 2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수강신청 : 3.18.(월)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온라인 www.bscc.or.kr (아카데미 > 강좌안내 및 접수)

문의 : 전시교육팀 051) 607-6061~4

특 강						
	세계의 뮤지컬 시즌2	3.30 - 4.20	매주 토(4회)	11:00-13:00	컨퍼런스홀	30, 80,000
	유럽의 미술관 : 우피치 미술관	5.10 - 5.31	매주 금(4회)	10:00-12:00	컨퍼런스홀	30, 80,000
	알기 쉬운 현대음악 이야기	5.17 / 5.24	매주 금(2회)	14:00-16:00	컨퍼런스홀	30, 40,000
	음악을 보고, 그림을 듣는다	6.12 / 6.19	매주 수(2회)	19:00-21:00	컨퍼런스홀	30, 40,000
인문학 · 교양						
<i>new</i>	김상헌의 클래식무대 클래식의 고향에서 새로운 세계로	4. 8 - 6.17	매주 월(10회)	14:00-16:00	컨퍼런스홀	30, 200,000
<i>new</i>	Creative 북바인딩	4. 3 - 5.29	매주 수(8회)	19:00-21:00	미술실	8, 150,000 <small>*재료비 포함</small>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초급)	4. 8 - 6.17	매주 월(10회)	10:30-12:30	강의실	15, 180,000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응용)	4. 8 - 6.17	매주 월(10회)	14:00-16:00	강의실	15, 180,000
	유혁준의 음악이야기	4.16 - 6.18	매주 화(10회)	14:30-16:30	컨퍼런스홀	30, 200,000
	원더풀 컬러풀 미술사: 신화와 종교	4. 4 - 6.20	매주 목(10회)	14:00-16:00	컨퍼런스홀	30, 150,000
	Artistic Fantastic 미술사: 근대 모더니즘	4. 6 - 6.22	매주 토(10회)	14:00-16:00	컨퍼런스홀	30, 150,000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포트폴리오)	4. 6 - 6. 8	매주 토(10회)	10:00-12:00	강의실	20, 150,000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초급)	4. 6 - 6. 8	매주 토(10회)	15:00-17:00	강의실	20, 120,000
실기 (악기 · 무용)						
<i>premium</i>	지휘자 클래스	4.10 - 6.19	매주 수(10회)	19:00-21:00	합창단연습실	10, 360,000
<i>premium</i>	첼로(초급)	4.13 - 6.15	매주 토(10회)	11:00-12:30	레슨실	5, 240,000
<i>premium</i>	첼로(중급)	4.13 - 6.15	매주 토(10회)	13:00-14:30	레슨실	5, 240,000
	라인댄스(초급)	4. 9 - 6.11	매주 화(10회)	11:00-12:00	연습실	20, 100,000
	라인댄스(중급)	4. 11 - 6.20	매주 목(10회)	13:00-14:00	연습실	20, 100,000
	슬림 업 스트레칭 발레	4.10 - 6.19	매주 수(10회)	10:30-11:30	연습실	20, 100,000
	프리미엄 발레	4.12 - 6.14	매주 금(10회)	14:00-15:00	연습실	20, 100,000
	바이올린 A	4. 8 - 6.17	매주 월(10회)	17:30-19:00	강의실	10, 120,000
	바이올린 B	4. 8 - 6.17	매주 월(10회)	19:30-21:00	강의실	10, 120,000
	클라리넷 A	4. 8 - 6.17	매주 월(10회)	17:30-19:00	레슨실	10, 120,000
	클라리넷 B	4. 8 - 6.17	매주 월(10회)	19:30-21:00	레슨실	10, 120,000
	해금(중급A)	4. 9 - 6.11	매주 화(10회)	17:30-19:00	강의실	12, 120,000
	해금(중급B)	4. 9 - 6.11	매주 화(10회)	19:30-21:00	강의실	12, 120,000
	사물놀이	4. 9 - 6.11	매주 화(10회)	17:30-19:00	연습실	12, 120,000
	가야금(중급)	4. 9 - 6.11	매주 화(10회)	17:30-19:00	레슨실	12, 140,000
	가야금(초급)	4. 9 - 6.11	매주 화(10회)	19:30-21:00	레슨실	12, 140,000
	한국무용(민요허튼춤)	4. 9 - 6.11	매주 화(10회)	15:00-16:00	연습실	20, 100,000
	한국무용(기초)	4.10 - 6.19	매주 수(10회)	15:00-16:00	연습실	20, 100,000
	한국무용(태평무)	4. 11 - 6.20	매주 목(10회)	15:00-16:00	연습실	20, 100,000
	해금(초급)	4. 11 - 6.20	매주 목(10회)	17:30-19:00	레슨실	12, 120,000
	클래식기타(입문)	4.12 - 6.14	매주 금(10회)	10:30-12:00	레슨실	15, 120,000
	클래식기타(중급)	4.12 - 6.14	매주 금(10회)	14:00-15:30	레슨실	15, 120,000
	클래식기타(초급)	4.12 - 6.14	매주 금(10회)	16:00-17:30	강의실	15, 120,000

※ 강좌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019

시민 노래축제

매주 금요일 추억을
시민회관에서



누구나 즐기는 축제 (무료공연) *우천시 취소

일 시: 4월 19일(금) ~ 5월 24일(금)

매주 금요일 12시 20분 ~ 13시

장 소: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주최·주관: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일정	단체명	구분
4월 19일	김소율 소프라노	클래식
	해피앙상블	남성중창
4월 26일	썬앤문 프로젝트	대중음악
	부산시립합창단	합창
5월 03일	부산시립무용단	한국무용
5월 10일	리즈	전자현악
	La show(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코미디
5월 17일	애플파이	대중음악
	칼라시마(이탈리아) 로르노아(카메룬)	월드뮤직
5월 24일	금관5중주	클래식

SPRING DAY

(주)디자인부산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65번길 90, 101호 디자인부산 [T] 051)936-1216 [E] info@designbusan.kr [H] www.designivy.com



(재)부산문화회관

혜택을 늘리다+ 감동을 더하다+

플러스(무료) 회원 가입 캠페인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품격높은 문화도시 부산의 대표적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플러스 회원 가입으로 설렘과 감동의 순간을 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 하고 푸짐한 경품도 받으세요.

대상

캠페인기간중 가입한 회원

경품내용

선물1	10명(1인 2매)	2019 부산문화회관 전 공연 초대권
선물2	20명	부산문화회관 VIP회원권
선물3	30명	부산문화회관 스페셜회원권
선물4	50명	부산문화회관 예술단회원권
선물5	100명(1인 5매)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5매
선물6	100명	월간 <예술에의 초대> 1년 구독권
선물7	100명	부산문화회관 텀블러
선물8	100명	부산문화회관 보조배터리
선물9	100명	부산문화회관 쿠션
선물10	200명(1인 1매)	해리스 협찬 '아메리카노 무료이용권 1매'

가입기간

2019년 3월 1일(금)~6월 30일(일)

당첨자 발표

2019년 7월 15일(월)

신청방법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팝업창에서
이름, 전화번호, 아이디만 기입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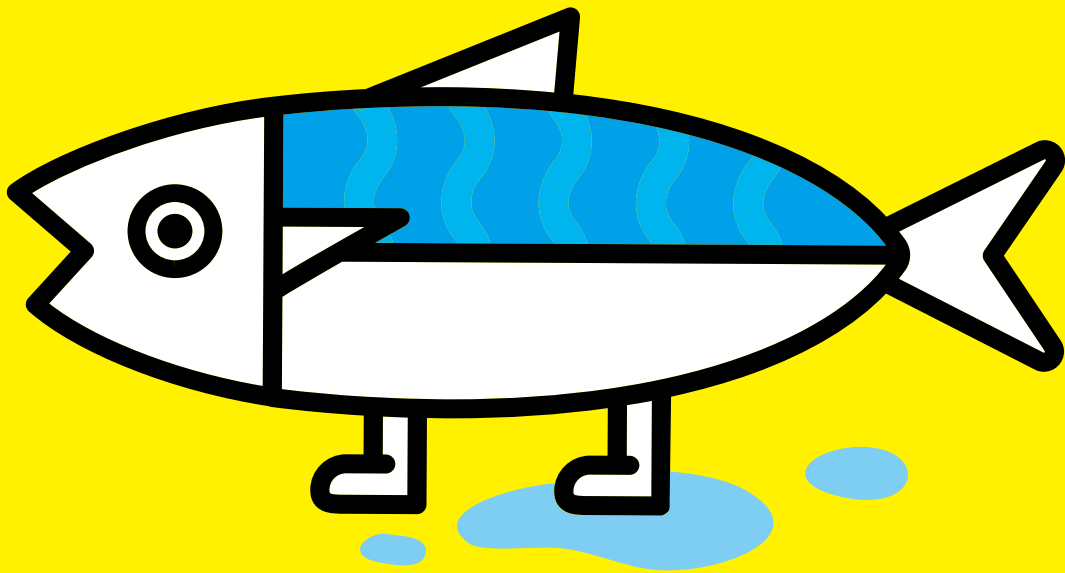


발 달 리

꼬드어

GGO
DEUNG O

호기심으로 뚝뚝 뭉친 두다리로
여행을 즐기는 부산 대표 캐릭터



www.designivy.com www.designbusan.kr

꼬드어는 부산을 상징하는 시어(市魚), 고등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FACEBOOK



INSTAGRAM

(주) 디자인부산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65번길 90 평광우리가 1층 TEL. 051. 636. 1216



테너_ 페데리코 파치오티

지휘자_ 최영선

연주_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Kim Yeong Jun

조수미 콘서트

Mother Dear

2019. 5. 4 (토) 5:0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